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박 사 학 위 논 문

청소년의 사이버 괴롭힘에서 개인의 부정적 신념 및 도덕적 이탈과 가해동조행동 및 방관행동 간의 관계

– 집단의 부정적 신념과 집단의 도덕적 이탈의 조절효과 –

박 서 연

제주대학교 대학원

생활환경복지학과

2024년 2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청소년의 사이버 괴롭힘에서 개인의 부정적 신념 및 도덕적 이탈과 가해동조행동 및 방관행동 간의 관계

- 집단의 부정적 신념과 집단의 도덕적 이탈의 조절효과 -

이 논문을 이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박 서 연

제주대학교 대학원

생활환경복지학과

지 도 교 수 서 미 정

박서연의 이학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12월

심사위원장 신세라 인

위 원 오수미 인

위 원 공유경 인

위 원 오진숙 인

위 원 서미정 인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목 차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문제 ---- 5

3. 연구모형 ---- 6

4. 용어의 정의 ---- 6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 8

1. 사이버 괴롭힘의 이해 ---- 8

1) 사이버 괴롭힘의 개념과 특성 ---- 8

2) 사이버 괴롭힘의 유형 ---- 9

3) 집단과정으로서의 사이버 괴롭힘 ---- 11

2. 사회인지이론 ---- 12

3. 사회인지적 요인과 사이버 괴롭힘 ---- 13

1)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부정적 신념 ---- 13

2)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도덕적 이탈 ---- 15

4. 통제변인 : 성별 ---- 18

Ⅲ. 연구방법 ---- 19

1. 연구대상 ---- 19

2. 측정도구 ---- 20

3. 자료분석 ---- 23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Ⅳ. 연구결과 ---------- 24
1. 연구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 24
2. 개인의 부정적 신념 및 도덕적 이탈과 가해동조행동 간의 관계에서
집단의 부정적 신념과 집단의 도덕적 이탈의 조절효과 ---------- 27
1) 개인의 부정적 신념과 가해동조행동 간의 관계에서 집단의 부정적 신념과
집단의 도덕적 이탈의 조절효과 ---------- 27
2) 개인의 도덕적 이탈과 가해동조행동 간의 관계에서 집단의 부정적 신념과
집단의 도덕적 이탈의 조절효과 ---------- 30
3. 개인의 부정적 신념 및 도덕적 이탈과 사이버 괴롭힘 방관행동 간의
관계에서 집단의 부정적 신념과 집단의 도덕적 이탈의 조절효과 ---------- 33
1) 개인의 부정적 신념과 방관행동 간의 관계에서 집단의 부정적 신념과
집단의 도덕적 이탈의 조절효과 ---------- 33
2) 개인의 도덕적 이탈과 방관행동 간의 관계에서 집단의 부정적 신념과
집단의 도덕적 이탈의 조절효과 ---------- 36

Ⅴ. 논의 ---------- 41
참고문헌 ---------- 46
부록 ---------- 58
Abstract ---------- 63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목차

<표 1> 연구 대상의 분포 ---------- 19

<표 2> 연구변인들의 기술통계치 및 상관관계 ---------- 26

<표 3> 개인의 부정적 신념과 가해동조행동 간의 관계에서
집단의 부정적 신념과 집단의 도덕적 이탈의 조절효과 ---------- 28

<표 4> 개인의 부정적 신념과 가해동조행동 간의 관계에서
집단의 도덕적 이탈의 단순 기울기 검증 결과 ---------- 29

<표 5> 개인의 도덕적 이탈과 가해동조행동 간의 관계에서
집단의 부정적 신념과 집단의 도덕적 이탈의 조절효과 ---------- 31

<표 6> 개인의 도덕적 이탈과 가해동조행동 간의 관계에서
집단의 부정적 신념의 단순 기울기 검증 결과 ---------- 32

<표 7> 개인의 부정적 신념과 방관행동 간의 관계에서
집단의 부정적 신념과 집단의 도덕적 이탈의 조절효과 ---------- 34

<표 8> 개인의 부정적 신념과 방관행동 간의 관계에서
집단의 도덕적 이탈의 단순 기울기 검증 결과 ---------- 35

<표 9> 개인의 도덕적 이탈과 방관행동 간의 관계에서
집단의 부정적 신념과 집단의 도덕적 이탈의 조절효과 ---------- 37

<표 10> 개인의 부정적 신념과 방관행동 간의 관계에서
집단의 부정적 신념의 단순 기울기 검증 결과 ---------- 38

<표 11> 개인의 도덕적 이탈과 방관행동 간의 관계에서
집단의 도덕적 이탈의 단순 기울기 검증 결과 ---------- 39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모형 ---------- 6

[그림 2] 가해동조행동에 대한 개인의 부정적 신념과
집단의 도덕적 이탈의 상호작용 ---------- 29

[그림 3] 가해동조행동에 대한 개인의 도덕적 이탈과
집단의 부정적 신념의 상호작용 ---------- 32

[그림 4] 방관행동에 대한 개인의 부정적 신념과
집단의 도덕적 이탈의 상호작용 ---------- 35

[그림 5] 방관행동에 대한 개인의 도덕적 이탈과
집단의 부정적 신념의 상호작용 ---------- 38

[그림 6] 방관행동에 대한 개인의 도덕적 이탈과
집단의 도덕적 이탈의 상호작용 ---------- 40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청소년의 사이버 괴롭힘에서 개인의 부정적 신념 및 도덕적 이탈과 가해동조행동 및 방관행동 간의 관계
- 집단의 부정적 신념과 집단의 도덕적 이탈의 조절효과 -

박 서 연

제주대학교 대학원 생활환경복지학과

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기 사이버 괴롭힘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그 감소 및 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사이버 괴롭힘을 강화하는 가해동조행동 및 방관행동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인지적 관점에서 개인의 부정적 신념 및 도덕적 이탈과 가해동조행동 및 방관행동 간의 관계에서 집단의 부정적 신념과 집단의 도덕적 이탈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중학생 1, 2학년 청소년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종 760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버 괴롭힘에서 가해동조행동과 방관행동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나, 가해동조행동과 방관행동은 중복하여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이버 괴롭힘에서 개인 및 집단의 사회인지적 요인 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즉 개인이 사이버 괴롭힘을 부정적으로 생각할수록 또래집단도 사이버 괴롭힘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개인이 지각하였다. 또한 개인이 사이버 괴롭힘을 합리화하고 또래들과 책임을 분산하는 등 도덕적 이탈 수준이 높을수록 또래집단도 사이버 괴롭힘에서 도덕적으로 이탈되었다고 개인이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둘째, 청소년의 사이버 괴롭힘에서 개인의 부정적 신념과 가해동조행동 간의 관계는 집단의 도덕적 이탈의 수준에 따라 달라졌다. 즉 집단의 도덕적 이탈을 평균보다 높게 지각하는 청소년들은 개인의 부정적 신념이 낮을수록 가해동조행동이 증가하는 반면, 집단의 도덕적 이탈을 낮게 지각하는 청소년들은 개인의 부정적 신념이 낮더라도 가해동조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개인의 도덕적 이탈과 가해동조행동 간의 관계는 집단의 부정적 신념이 낮을수록 기울기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집단의 부정적 신념을 낮게 지각할수록 개인의 도덕적 이탈이 가해동조행동으로 이어지는 정도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의 사이버 괴롭힘에서 개인의 부정적 신념과 방관행동 간의 관계는 집단의 도덕적 이탈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집단의 도덕적 이탈을 평균보다 1 표준편차 높게 지각하는 청소년들은 개인의 부정적 신념을 낮게 지각할수록 방관행동이 증가하였다. 반면, 집단의 도덕적 이탈을 평균보다 낮게 지각하는 청소년들은 개인의 부정적 신념이 낮더라도 방관행동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개인의 도덕적 이탈과 방관행동 간의 관계는 집단의 부정적 신념이 낮을수록 기울기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집단의 부정적 신념을 낮게 지각할수록 개인의 도덕적 이탈이 방관행동으로 이어지는 정도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또한 개인의 도덕적 이탈과 방관행동 간의 관계는 집단의 도덕적 이탈이 낮을수록 기울기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집단이 도덕적 이탈을 낮게 지각할수록 개인의 도덕적 이탈이 방관행동으로 이어지는 정도가 더욱 컸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사이버 괴롭힘에서 개인의 부정적 신념 및 도덕적 이탈과 가해동조행동 및 방관행동 간의 관계에서 집단의 부정적 신념과 집단의 도덕적 이탈의 조절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사회인지적 관점에서 청소년의 사이버 괴롭힘에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사이버 괴롭힘 상황을 개인 및 집단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주요어 : 사이버 괴롭힘, 가해동조행동, 방관행동, 개인의 부정적 신념, 집단의 부정적 신념, 개인의 도덕적 이탈, 집단의 도덕적 이탈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국내에서 왕따 사건이 관심받기 시작한 1990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청소년들의 또래 간 괴롭힘(bullying)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주로 학교 교실 및 운동장 등 오프라인 공간에서 일어났던 또래괴롭힘(Olweus, 1993; Smith, 1991)은 최근 전자 매체의 발전으로 인해 인터넷 및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활용한 사이버 공간으로 확대되고 있다(김부경, 2022; 홍예지, 2020; Quirk & Campbell, 2015). 사이버 괴롭힘(cyberbullying)은 웹사이트 및 이메일 등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또래 간에 의도적인 괴롭힘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Kowalski & Limber, 2013; Smith et al., 2008).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사이버 공간에서 나타나는 괴롭힘에 대한 피해 비중이 8.4%에서 12.3%로 증가하는 추세이다(교육부, 2021, 2022, 2023).

사이버 괴롭힘이 자주 일어나는 공간으로 카카오톡, 라인 등과 같은 인스턴트 메신저(41.1%),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과 같은 SNS(28.4%) 등으로(교육부, 2022), 주로 사회적 상호작용이 많이 이루어지는 그룹채팅방과 온라인 게시판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서미정, 2020; Shim & Shin, 2016). 사이버 괴롭힘으로 인해 피한 청소년들은 우울, 불안, 학교생활 부적응, 자살 등의 문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최정아, 2019; Beran & Li, 2005; Juvonen & Gross, 2008), 피해의 심각성은 오프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괴롭힘보다 더 큰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Quirk & Campbell, 2015).

청소년기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연구들의 초반에는 주로 가해자와 피해자 중심의 양자 관계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다(구영롱, 박종효, 2022; 이승은 외, 2014; Mishna et al., 2012). 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중심의 접근은 실질적인 사이버 괴롭힘의 감소 또는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논의되면서 집단 맥락에서 사이버 괴롭힘을 이해하고 개입 방안을 살펴보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김부경,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022; 홍예지, 2020; Allison, 2022; Quirk & Campbell, 2015).

집단과정에서 사이버 괴롭힘을 이해하는 접근에서는 괴롭힘 상황을 목격하는 주변인의 행동에 주목하고 있다(서미정, 2020; 홍예지, 2020; Brody & Vangelisti, 2016). 오프라인 및 사이버 괴롭힘 주변인 행동으로 인하여 괴롭힘이 강화되거나 완화될 수 있는데, 특히 괴롭힘의 지속을 적극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강화하는 가해동조행동 및 방관행동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음이 강조되고 있다(서미정, 2015a). 사이버 공간에서 가해동조행동은 사이버 괴롭힘과 관련되는 메시지나 게시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가해행동을 지지하고 동참한다(허연주, 2019: Panumaporn et al., 2020). 방관행동은 사이버 괴롭힘 상황에서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으며 침묵하는 등 가해행동의 지속을 암묵적으로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서미정, 2020, González-Cabrera et al., 2019). 사이버 괴롭힘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대부분이 가해동조행동 및 방관행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Lenhart et al., 2011), 가해동조행동 및 방관행동을 감소시키는 전략 마련은 사이버 괴롭힘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사이버 괴롭힘에서 가해동조행동 및 방관행동에 대한 이해는 사회인지이론의 틀에서 접근하는 것이 유용하다(Allison, 2022). 사회인지이론에서는 개인의 행동은 개인이 지각하는 행동에 대한 기준과 집단이 공유하는 행동의 기준이 상호작용 결과로 형성된다고 본다(Bandura, 2006). 개인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외부의 자극과 통제가 없이도 바람직한 행동을 하기 위해 노력하지만(Shaffer, 1996), 사이버 괴롭힘 상황에서 청소년들은 개인의 신념과 함께 집단의 반응을 고려하여 행동하게 된다(서미정, 2020; Allison, 2022). 따라서 청소년 개인과 또래 집단의 상호적인 측면에서 청소년기 사이버 괴롭힘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Bandura, 2006; Swearer et al., 2014).

사이버 괴롭힘에서 개인과 집단의 행동 기준을 제시해주는 개인의 부정적 신념과 도덕적 이탈은 대표적인 사회인지 요인이다(Bjärehed et al., 2021). 개인의 부정적 신념은 개인이 괴롭힘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을 말하는데, 선행연구에서는 괴롭힘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가해동조행동 및 방관행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미정, 2021a; Allison & Bussey, 2017). 도덕적 이탈은 괴롭힘에 대해 도덕적으로 합리화를 하고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것을 말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하며, 도덕적 이탈 수준이 낮을수록 가해동조행동 및 방관행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llison & Bussey, 2017; Hinduja & Patchin, 2013).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사이버 괴롭힘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각하며,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지만, 적극적으로 사이버 괴롭힘에 저항하거나 피해자를 방어하는 행동을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Bastiaensens et al., 2014; DeSmet et al., 2016). 이러한 결과는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가해동조행동 및 방관행동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요인을 탐색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래집단의 특성으로 인해 또래 간 괴롭힘 수준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고되는데(김지은, 박혜준, 2016; Gini et al., 2008; Salmivalli & Voeten, 2004), 특히 또래집단이 사이버 괴롭힘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도덕적으로 이탈된 수준이 낮다고 개인이 지각할수록 가해동조행동 및 방관행동에 덜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지원, 한세영, 2020; 김지은, 박혜준, 2016; Allison & Bussey, 2017). 따라서 사회인지이론의 틀에서 부정적 신념과 도덕적 이탈에 대해 개인 및 집단의 인식을 구분하여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가해동조행동과 방관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Allison, 2022; Hinduja & Patchin, 2013).

그동안의 사이버 괴롭힘과 관련짓는 개인 및 집단의 부정적 신념과 도덕적 이탈을 탐색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오프라인 괴롭힘 상황에서 부정적 신념과 도덕적 이탈을 측정한 것을 사용하였다(송지연, 2022; 진천사, 오인수, 2018; 홍예지, 2023). 그러나 사이버 괴롭힘과 오프라인 괴롭힘에 대한 신념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들은 오프라인 보다는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을 더 나쁘다고 인식하였다(서미정, 2021a). 특히 신념과 행동을 살펴보는 연구들에서는 신념과 상응하는 행동을 관련짓는 것을 강조한다(박서연, 서미정, 2023; Werner & Nixon,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 괴롭힘 상황에 대한 개인 및 집단의 부정적 신념과 도덕적 이탈을 측정하여 가해동조행동 및 방관행동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사이버 괴롭힘 상황에서 개인 및 집단의 부정적 신념과 도덕적 이탈의 상호작용을 살펴본 선행연구도 이루어진 바 있으나, 이들 연구는 대부분 가해행동과 연결지어 살펴보았다(Allison & Bussey, 2017; Almeida et al., 2010; Bjärehed et al., 2021). 그러나 개인 및 집단의 부정적 신념과 도덕적 이탈은 가해동조행동 및 방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관행동과 관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김지원, 한세영, 2020; 서미정, 2013, 2021a), 개인 및 집단의 부정적 신념과 도덕적 이탈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부정적 신념 및 도덕적 이탈을 개인과 집단의 인식 간에 상호작용을 확인함으로써 사이버 괴롭힘에서 가해동조행동 및 방관행동을 예방하고 강조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이버 괴롭힘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보고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남학생이 사이버 괴롭힘에서 가해동조행동과 방관행동에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DeSmet et al., 2016; Olenik-Shemesh et al., 2017; Quirk & Campbell, 2015), 일부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가해동조행동 및 방관행동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아라, 최새은, 2016; Gualdo et al., 2015). 또한 개인 및 집단의 부정적 신념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욱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덕적 이탈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서미정, 2021a; Allison & Bussey, 2017).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성별을 통제 변인으로 설정하여 연구 변인들의 관련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중학교 1, 2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이버 괴롭힘에서 개인 및 집단의 부정적 신념, 개인 및 집단의 도덕적 이탈, 가해동조행동, 방관행동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부정적 신념 및 도덕적 이탈과 가해동조행동 및 방관행동 간의 관계를 집단의 부정적 신념과 집단의 도덕적 이탈이 조절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이 지각하는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개인 및 집단의 부정적 신념과 도덕적 이탈이 가해동조행동과 방관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사회인지적 틀에서 접근할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사이버 괴롭힘에서 개인의 부정적 신념, 개인의 도덕적 이탈, 집단의 부정적 신념, 집단의 도덕적 이탈, 가해동조행동, 방관행동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사이버 괴롭힘에서 개인의 부정적 신념 및 도덕적 이탈과 가해동조행동 간의 관계를 집단의 부정적 신념과 집단의 도덕적 이탈이 조절하는가?

2-1) 개인의 부정적 신념과 가해동조행동 간의 관계는 집단의 부정적 신념과 집단의 도덕적 이탈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가?

2-2) 개인의 도덕적 이탈과 가해동조행동 간의 관계는 집단의 부정적 신념과 집단의 도덕적 이탈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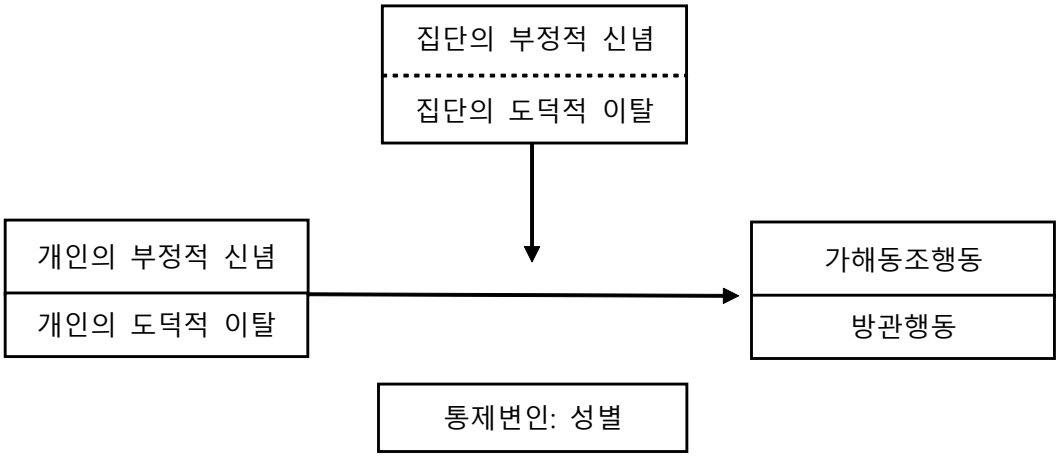
연구문제 3. 사이버 괴롭힘에서 개인의 부정적 신념 및 도덕적 이탈과 방관행동 간의 관계를 집단의 부정적 신념과 집단의 도덕적 이탈이 조절하는가?

3-1) 개인의 부정적 신념과 방관행동 간의 관계는 집단의 부정적 신념과 집단의 도덕적 이탈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가?

3-2) 개인의 도덕적 이탈과 방관행동 간의 관계는 집단의 부정적 신념과 집단의 도덕적 이탈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3. 연구모형



[그림 1] 연구모형

4. 용어의 정의

1) 사이버 괴롭힘

사이버 괴롭힘은 그룹채팅방과 온라인 게시판 등에서 누군가를 괴롭히기 위한 메시지, 게시글 등을 작성하는 또래 간에 나타나는 부정적인 현상을 말하며, 가해자 및 피해자 뿐만 아니라 사이버 괴롭힘 상황을 목격하는 주변인이 존재하는 집단적 현상을 말한다.

2) 개인의 부정적 신념

개인의 부정적 신념은 사이버 괴롭힘에 대해 개인이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이버 공간에서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놀리는 등의 행동에 대해 개인이 나쁘다고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3) 집단의 부정적 신념

집단의 부정적 신념은 또래집단이 그룹채팅방과 온라인 게시판에서 고의로 누군가를 비방하고 상대방이 원치 않는 사진 및 동영상을 올리는 등의 사이버 괴롭힘을 또래집단이 나쁘다고 생각한다고 개인이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인의 도덕적 이탈

개인의 도덕적 이탈은 사이버 괴롭힘을 합리화하고 괴롭힘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며, 사이버 괴롭힘 결과를 인지적으로 왜곡하는 등 도덕적으로 이탈된 것을 말한다.

5) 집단의 도덕적 이탈

집단의 도덕적 이탈은 사이버 괴롭힘에 대해 또래집단이 합리적인 행동이라 생각하고 괴롭힘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생각을 또래집단이 공유하고 있다고 개인이 지각하는 것을 말한다.

6) 가해동조행동

사이버 괴롭힘에서 가해동조행동은 사이버 공간에서 나타나는 괴롭힘 상황에서 가해행동과 관련되는 그룹채팅방 메시지, 온라인 게시물 등을 보고 지지하는 메시지나 댓글을 작성하는 등 가해행동을 동조하고 강화하는 행동을 말한다.

7) 방관행동

사이버 괴롭힘에서 방관행동은 사이버 괴롭힘과 관련되는 메시지, 게시글, 댓글 등을 읽고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거나 모르는 척하는 등 괴롭힘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사이버 괴롭힘의 이해

1) 사이버 괴롭힘의 개념과 특성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청소년들 간에 발생하는 또래괴롭힘 현상은 사이버 공간으로 확대되고 있다(Seo, 2023). 국내외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명칭으로 연구가 되고 있다.

국외에서는 사이버 괴롭힘을 Online harassment, Cyberbullying, Electronic Bullying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Ybarra와 Mitchell(2004)은 ‘Online harassment’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의도적이고 명백한 공격 행위로 정의하였다. Patchin과 Hinduja(2006)는 ‘Cyberbully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휴대폰 및 기타 전자 기기를 통해 행해지는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Kowalski와 Limber(2007)는 ‘Electronic Bully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메일, 인스턴트 메신저, 웹사이트 또는 휴대폰으로 전송되는 메시지나 이미지 등을 이용한 괴롭힘으로 정의하였다.

국내에서는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되는 괴롭힘 현상을 사이버 폭력, 사이버 불링, 사이버 괴롭힘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정완(2005)은 ‘사이버 폭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적 행위라고 정의하였다. 김봉섭 외(2013)는 ‘사이버 불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의 전자매체를 통해 욕설 및 협박을 하거나 사이버 공간에서 폭언을 하고, 음란물 및 거짓 정보 등을 유포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모정은 외(2014)는 ‘사이버 괴롭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위협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괴롭힘으로 정의하였다.

이상의 정의들은 사용되는 명칭은 다르지만, 사이버 공간에서 이메일, 인스턴트 메신저, 채팅방 등을 활용하여 상대방을 고의로 위협하고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 괴롭힘을 온라인상에서 나타나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는 또래 간의 괴롭힘 현상으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한 그룹채팅방, 온라인 게시판 등에서 일어나는 행동으로 보고자 한다.

이러한 사이버 괴롭힘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버 괴롭힘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김부경, 2022; Hinduja & Patchin, 2022). 특히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사이버 괴롭힘은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이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되어 나타난다(김부경, 2022; Cassidy et al., 2013). 둘째, 사이버 괴롭힘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Patchin & Hinduja, 2015). 괴롭힘 가해행동과 관련된 게시물이나 댓글 등이 다른 사람에 의해 여러 번 공유될 수 있다(Patchin & Hinduja, 2011; Slonje & Smith, 2008). 셋째, 사이버 괴롭힘은 고의적인 행동이다(Patchin & Hinduja, 2015). 즉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피해자에게 공격적인 행동이 의도적으로 나타난다(Smith et al., 2008). 마지막으로, 사이버 괴롭힘은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한다(Patchin & Hinduja, 2015). 상대적으로 힘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향해 괴롭힘을 가하는 특성이 있다(Olweus, 1993). 즉 사이버 괴롭힘은 상호 알고 있는 사이에서 발생하고 반복적이고 고의적으로 나타나며, 힘의 불균형이라는 특성이 있다.

2) 사이버 괴롭힘 유형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사례가 축적됨에 따라 사이버 괴롭힘의 유형은 다양하게 구분되고 있다(이승현 외, 2015). 특히 사이버 괴롭힘은 새로운 유형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며, 빠르게 변화하는 특징이 있다(조윤오, 2017).

Willard(2007)에 의하면 사이버 괴롭힘은 플레이밍, 온라인 괴롭힘, 사이버 스토킹 등 총 일곱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플레이밍(flaming)은 누군가에게 무례하고 모욕적인 메시지를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에 공개적으로 보내는 것을 말한다. 둘째, 온라인 괴롭힘(online harassment)은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반복적이고 공격적인 메시지를 개인에게 보내는 것을 말한다. 셋째, 사이버 스토킹(cyberstalking)은 개인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위협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넷째, 명예훼손(denigration)은 한 사람에 대해 사실이 아닌 거짓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그러한 자료 등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다섯째, 가장하기(masquerade)는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인 척하며, 어떤 사람에 대해 유해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 여섯째, 폭로하기(outing)는 개인의 사적이고 민감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배척하기(exclusion)는 온라인 집단에서 누군가를 고의로 배제하는 행동을 말한다(Watts et al., 2017).

조윤오(2017)에 의하면 사이버 괴롭힘은 익명성 콘텐츠 유포형, 집단적 사이버 불링형 등 총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익명성 콘텐츠 유포형은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을 이용하여 개인의 정보를 유출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집단적 사이버 불링형은 인스턴트 메신저나 온라인 게시판을 활용하여 악성 댓글을 작성하여 공개적으로 어떤 사람을 모욕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 성적·루머 유포형은 특정 사람에 대한 안 좋은 루머를 퍼뜨리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반복 갈취형은 절도 및 금품 갈취가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이 밖에 청소년들이 그룹채팅을 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는 SNS로는 '카카오톡'이 언급되고 있으며(교육부, 2022), 카카오톡을 이용한 괴롭힘으로 카따, 떼카, 방폭, 카톡감옥 등으로 불리고 있다(이승현 외, 2015). 첫째, 카따(카카오톡 왕따)는 그룹채팅방에서 집단 괴롭힘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떼카(떼 지어 카카오톡)는 그룹채팅방에서 다수가 한 명에게 일시에 집단적으로 욕을 하는 행동을 말한다. 셋째, 방폭(카카오톡 그룹채팅방을 폭발)은 그룹채팅방에 한 사람을 초대한 후 한 번에 그룹에 속한 전원이 나감으로써 초대받은 사람만 채팅방에 남게 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카톡감옥(카카오톡 감옥)은 그룹채팅방에서 특정인에 대한 욕설을 게시하고, 채팅방을 나가더라도 그룹에 속한 다른 사람이 지속적으로 다시 초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사이버 괴롭힘은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 또는 집단이 어떤 사람을 고의로 비방하고, 공격적인 메시지를 작성하는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Livingstone et al., 2013). 또한 사이버 괴롭힘은 주로 카카오톡 등과 같은 그룹채팅을 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킹 사이트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문선아, 2016; 서미정, 2020).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3) 집단과정으로서의 사이버 괴롭힘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괴롭힘은 개인 간의 문제이기 보다 또래집단의 사회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사회현상이다(Salmivalli, 2010). 이는 가해자 및 피해자와 사이버 괴롭힘을 목격하는 주변인들의 행동 반응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에 따라 사이버 괴롭힘이 증가 또는 감소 되기 때문이다(서미정, 2020; Hong & Lee, 2022; Pepler et al., 2021).

사이버 괴롭힘에서 괴롭힘을 강화하는 주변인 행동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가해동조행동은 괴롭힘이 일어나면 동참하거나 부추기는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서미정, 2006). 즉 사이버 괴롭힘과 관련된 온라인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공감하는 표현을 하는 것을 재미있다고 느끼며(Bastiaensens et al., 2014; Pepler et al., 2021), 피해자에 대해서는 괴롭힘을 당할 만한 존재라고 생각한다(서미정, 2020; Oh & Hazler, 2009). 둘째, 방관행동은 사이버 괴롭힘의 위험 상황을 성인이나 다른 또래에게 알리지 않고, 모르는 척 하는 등 괴롭힘에 대해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허연주, 2019; Barlińska et al., 2013; Pepler et al., 2021). 즉 사이버 괴롭힘 상황이 자신과 관련이 있는지를 고려하고, 개입으로 인해 어떠한 이득이나 손해가 될지를 먼저 생각한다(Pepler et al., 2021). 이러한 괴롭힘에 동참하는 가해동조행동과 괴롭힘을 목격하고도 침묵하는 방관행동은 가해자에게 자신의 행동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하여 괴롭힘을 더욱 강화하게 한다(Byers, 2016; Menesini et al., 2003).

선행연구에서는 가해동조행동과 방관행동의 감소는 사이버 괴롭힘의 감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Jeong et al., 2022). 그러나 대부분의 청소년은 사이버 괴롭힘 상황에서 방관행동에 참여하며(Lenhart et al., 2011), 사이버 괴롭힘을 함께 목격하는 다수가 괴롭힘에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는 경우 방관행동이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rody & Vangelisti, 2016). 이는 방관행동을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책임이 분산되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고 더 높게 지각하기 때문이다(Fischer et al., 2011). 따라서 괴롭힘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는 것보다는 가해동조행동과 방관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이 사이버 괴롭힘을 완화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서미정, 2015a).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사회인지이론

사이버 괴롭힘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반응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사회인지이론을 통한 개인의 상황과 집단의 환경적 자극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Allison & Bussey, 2017). 사회인지이론에서는 청소년의 행동에 대한 개인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또래집단의 특성도 함께 고려해 봐야 함을 강조한다(Bandura, 2006).

사회인지이론에서 개인의 내적인 부분은 외부 환경에서 나타나는 타인의 행동을 목격함으로써 개인의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본다(Veiga Simão et al., 2018). 이를 개인내적차원, 외부환경차원, 개인행동차원의 삼차원적 상호결정론이라고 하며(Bussey & Bandura, 1999; Orpinas & Horne, 2006), 개인내적차원인 개인적 기준과 외부환경차원인 집단의 반응이 상호작용하여 개인의 행동을 결정한다고 본다(Bjärehed et al., 2021).

개인은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한 행동을 하기 위해 자기규제의 기제를 사용한다(Bandura, 1986). 자기규제 기제는 개인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외부의 자극이나 통제가 없이도 바람직한 행동을 하는 능력을 말한다(Shaffer, 1996). 즉 개인은 바람직한 행동을 하기 위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사이버 괴롭힘이 잘못된 행동 또는 비윤리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신념을 갖고 있다면 사이버 괴롭힘에서 가해동조행동이나 방관행동을 하지 않게 된다(Allison & Bussey, 2016). 그러나 청소년들은 괴롭힘 상황에서 개인의 판단보다는 주변의 상황을 통해 행동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Allison & Bussey, 2017; Thornberg et al., 2021).

중요한 사회적 집단 관계에서 공유되는 행동에 대한 신념 및 기준은 개인의 부정적인 행동을 촉진하거나 완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Gini et al., 2022).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보다 집단이 함께 있을 때 좀 더 부정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때로는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공유함으로써 집단적으로 피해자를 비난할 수도 있다(Haslam, 2006). 즉 또래집단 내에서 괴롭힘에 대한 신념 및 기준을 공유함으로써 간접적인 방식으로 괴롭힘을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Ettekal et al., 2015).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청소년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인지적 요인인 부정적 신념 및 도덕적 기준 등을 개발하며, 이는 곧 개인의 행동으로 나타난다(Allison & Bussey, 2017; Bandura, 1997). 개인은 또래집단이 가지고 있는 집단의 신념과 개인의 신념이 일치할 때 만족감을 느낀다(Veiga Simão et al., 2018). 그러나 또래들이 공유하는 집단의 신념에 반하게 되는 경우, 또래집단에서 소외되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등의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Francisco et al., 2022; Williams & Guerra, 2007).

3. 사회인지적 요인과 사이버 괴롭힘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사회인지적 요인으로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부정적 신념과 도덕적 이탈이 있다. 부정적 신념과 도덕적 이탈은 사이버 괴롭힘 상황에서 행동의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개념으로 혼용될 수 있지만(Veenstra et al., 2018), 부정적 신념은 사이버 괴롭힘에서 나타나는 가해행동을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정도를 말하며, 도덕적 이탈은 사이버 괴롭힘을 왜곡하고,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등의 비도덕적인 행동을 정당화하여 도덕적으로 이탈된 점이라는 부분에서 다른 개념이다(Gini et al., 2015; White et al., 2009). 따라서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개인 및 집단의 부정적 신념과 도덕적 이탈의 상호작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Allison, 2022; Thornberg et al., 2021).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지이론 관점에서 개인과 집단을 분리하여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부정적 신념과 도덕적 이탈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부정적 신념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부정적 신념은 개인 및 집단의 부정적 신념으로 살펴볼 수 있다(Seo, 2023). 개인 및 집단의 부정적 신념은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사이버 괴롭힘을 중재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괴롭힘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서미정, 2021a).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먼저, 개인의 부정적 신념은 그룹채팅방과 온라인 게시판에서 나타나는 사이버 괴롭힘을 부정적인 행동이라고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서미정, 2020). 즉 그룹채팅방과 온라인 게시판에서 피해자를 공개적으로 깎아내리고,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유포하거나 배척 또는 소외시키는 등의 괴롭힘 행동(서미정, 2020; 허연주, 2019; Smith et al., 2008)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개인이 사이버 괴롭힘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정도는 청소년의 행동 반응에 영향을 준다(서미정, 2020; Perren & Gutzwiller-Helfenfinger, 2012).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개인의 부정적 신념과 가해동조행동 및 방관행동과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에서는 개인의 부정적 신념이 낮을 때, 가해동조행동 및 방관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rancisco et al., 2022; Macaulay et al., 2019).

오프라인 괴롭힘에서 부정적 신념과 가해동조행동 및 방관행동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에서도 오프라인 괴롭힘에 대한 개인의 부정적 신념이 낮을수록 가해동조행동이 증가하였으며, 개인의 부정적 신념이 높을수록 가해동조행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서연, 서미정, 2023). 또한 개인의 부정적인 신념이 높을수록 가해동조행동과 방관행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미정, 2015b; 오인수 외, 2019; Fazio & Olson, 2007; Salmivalli et al., 2011). 반면, 개인의 부정적 신념이 높아도 방관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연구도 있다(신현숙, 2014). 이처럼 청소년들의 괴롭힘에 대한 개인의 부정적 신념은 가해동조행동 및 방관행동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연구마다 결과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 이는 청소년들이 괴롭힘에 대한 개인의 부정적 신념에 따라 가해동조행동 및 방관행동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집단의 부정적 신념은 또래들의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신념을 개인이 지각하는 것을 말한다(Shin, 2022). 집단의 부정적 신념에 대한 연구는 또래집단의 실제 규준과 지각된 규준의 두 가지 측면으로 연구되고 있다(경선정, 신희영, 2023; Shin, 2022). 선행연구에서는 집단의 규준에 비해 지각된 규준이 괴롭힘과 더욱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선정, 신희영, 2023; Veenstra & Lodder, 2022). 즉 실제 집단의 규준보다 또래집단의 학교생활, 대인관계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된 지각된 규준이 개인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더욱 중요한 작용을 한다(경선정, 신희영, 2023; Tankard & Paluck, 2016). 사이버 괴롭힘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에 대해 또래집단이 부정적인 행동이라 생각한다고 개인이 지각할수록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중재적 개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해동조행동 및 방관행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astiaensens et al., 2014; Hinduja & Patchin, 2013; Pozzoli et al., 2012). 반면에 사이버 괴롭힘에 대해 또래집단이 수용한다고 개인이 지각할수록, 가해동조행동 및 방관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심미경, 서미정, 2013; Hinduja & Patchin, 2013; Piccoli et al., 2020).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또래집단의 수용 정도, 즉 또래집단에서 공유되고 있는 인식은 개인의 행동 반응을 예측하는 강력한 요인이다(Williams & Guerra, 2007). 따라서 개인이 집단의 부정적 신념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개인의 신념 및 행동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김지은, 박혜준, 2016; Hinduja & Patchin, 2013).

사회인지이론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신념이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개인과 집단의 상호작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Bussey et al., 2015; Desmet et al., 2016). 청소년들은 사이버 괴롭힘 상황에서 피해자를 도와주게 되면 자신도 괴롭힘에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위험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서미정, 2021b). 즉 사이버 괴롭힘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보며 도와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 심리적으로 불편함을 느끼지만 집단의 분위기에 의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Pepler et al., 2021). 또한 집단의 압력을 강하게 받는 청소년들은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괴롭힘 가해행동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arlett et al., 2016; Newman & Murray, 2005).

청소년들은 개인의 기준과 집단의 기준이 일치하지 않을 때 집단의 기준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Barlett et al., 2016). 따라서 청소년의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부정적 신념은 집단의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기준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Bussey et al., 2015; DeSmet et al., 2016; Panumaporn et al., 2020).

2)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도덕적 이탈

청소년의 또래괴롭힘과 관련되는 변인으로 자주 언급되는 사회인지적 요인은 도덕적 이탈이다(Allison, 2022; Menesin et al., 2015; Van Cleemput et al., 2014).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특히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괴롭힘을 이해하고 관여하기 위해서는 도덕적인 과정을 살펴봐야 한다(Romera et al., 2019). 선행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괴롭힘에 대해 도덕적으로 위반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hornberg et al., 2017).

도덕적 이탈은 특정 상황에 대한 옳지 못한 행동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사회인지 과정을 말한다(Bandura, 1991). 도덕적 이탈은 네 가지 기제로 나누어진다(서미정, 2006). 첫째, 행동의 결과를 인지적으로 재구성한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타당하게 생각하는 '도덕적 정당화', 도덕적으로 부당한 행동을 불법적인 행동과 같은 더욱 심각한 행동과 비교하는 '상대적 비교', 부정적 행동을 정화하여 표현하는 '완곡한 언어'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행동에 타당성을 부여한다. 둘째, 책임을 축소하고 집단과 공유함으로써 책임을 분산한다. 즉 개인의 비도덕적 행동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책임전가', 집단의 책임으로 돌리는 '책임분산'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책임을 과소평가한다. 셋째, 도덕적으로 위반된 행동의 결과를 최소화한다. 자신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행동을 부인하는 '결과 왜곡'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직면을 회피한다. 마지막으로, 괴롭힘의 피해자를 비난함으로써 죄책감을 감소시킨다. 구체적으로 문제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비난의 귀인', 피해자의 인간성이 부족하여 안 좋은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비인간화' 과정을 통해 자신의 부정적 행동을 합리화 한다(Allison, 2022; Bandura, 2006). 이러한 도덕적 이탈의 기제는 비도덕적인 행동으로 인해 수반되는 죄책감이나 수치심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역할을 한다(Bandura, 1991).

도덕적 이탈은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공격성과 같은 부적응적인 현상과 관계가 높으며, 사이버 괴롭힘을 지속하게 하는 요인이다(Gini et al, 2014). 선행연구에서는 도덕적 이탈이 높을수록 가해동조행동 및 방관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미정, 2013; DeSmet et al., 2012; Van Cleemput et al., 2014). 즉 개인이 사이버 괴롭힘 상황의 책임을 분산하고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 가해행동을 암묵적으로 지지하고 동조하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Bjärehed et al., 2021).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개인의 도덕적 이탈과 방관행동이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집단의 사회인지 요인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해 볼 것을 강조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Thornberg & Jungert, 2013).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사이버 괴롭힘에서 방관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은 피해자에게 괴롭힘을 당할 만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서미정, 2020), 사이버 괴롭힘이 심각한 부정적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방관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Macaulay et al., 2019).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개인의 도덕적 이탈은 집단의 부정적 신념이 낮을수록 괴롭힘 가해행동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enesini et al., 2015).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은 청소년의 사이버 괴롭힘에서 개인의 도덕적 이탈이 가해동조행동 및 방관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도덕적 이탈은 개인적인 측면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실제 도덕적인 자기규제는 개인의 내부적인 요인에서만 작용되지 않는다(Pozzoli et al., 2012). 사회인지이론에 의하면 개인의 신념이나 도덕적 이탈의 경향은 집단이 가해행동에 대해 도덕적으로 어떠한 기준으로 생각하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Bandura, 2002). 최근 청소년기 또래괴롭힘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집단의 도덕적 이탈에 주목하고 있다(김지원, 한세영, 2020; Allison & Bussey, 2017).

집단의 도덕적 이탈은 또래들이 도덕적으로 이탈된 경향을 개인이 지각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Allison, 2022; Bandura, 2002; Gini et al., 2015). 사회인지이론에서는 도덕적 이탈이 집단의 수준에서도 작용된다고 가정한다(Bandura, 2006). 집단의 도덕적 이탈은 개인별 도덕적 이탈이 집단으로 공유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닌 개인과 집단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 되는 현상으로(White et al., 2009), 집단의 도덕적 이탈 수준은 사이버 괴롭힘의 발생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Heirman et al., 2015).

오프라인 괴롭힘 연구에서는 집단의 도덕적 이탈이 낮을수록 가해동조행동 및 방관행동을 할 가능성이 낮았으며, 집단의 도덕적 이탈이 높을수록 가해동조행동 및 방관행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지원, 한세영, 2020; Gini et al., 2015; Thornberg et al., 2017). 사이버 괴롭힘에서도 또래집단의 도덕적 이탈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가해동조행동 및 방관행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개인이 괴롭힘에 대한 도덕적 기준이 낮고 집단의 도덕적 이탈이 높은 경우에 방관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Allison & Bussey, 2017), 사이버 괴롭힘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에 있어서도 집단의 도덕적 이탈 수준이 높을 경우, 개인의 부정적 신념이 가해동조행동 및 방관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4. 통제변인 : 성별

청소년기 사이버 괴롭힘에서 개인 및 집단의 부정적 신념에 대한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개인 및 집단의 부정적 신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서미정, 2021a; Barlett et al., 2016; Peled et al., 2019). 즉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사이버 괴롭힘을 더욱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Sharma et al., 2017).

개인 및 집단의 도덕적 이탈에서도 성별의 차이가 나타난다(김지원, 한세영, 2020). 사이버 괴롭힘에서 개인 및 집단의 도덕적 이탈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Allison & Bussey, 2017). 오프라인 괴롭힘 행동과 도덕적 이탈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에서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도덕적으로 이탈되어 괴롭힘 행동에 보다 더 동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미정, 2013).

가해동조행동 및 방관행동에서도 성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홍예지, 2023; Sharma et al., 2017; Thornberg et al., 2021). 일반적으로 가해동조행동은 남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방관행동은 여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진천사, 오인수, 2018; 홍예지, 2023).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가해동조행동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Gualdo et al., 2015). 특히 온라인 게시판이나 그룹채팅방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가해동조행동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mith et al., 2008). 반면, 일부 연구에서는 가해동조행동 및 방관행동은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Kowalski et al., 2019; Marcum et al., 2012; Ybarra & Mitchell,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 들 간 관계 검증에서 성별을 통제하고자 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중학교 1, 2학년 남녀 청소년이다. 중학교 1, 2학년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2022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서 사이버 괴롭힘이 중학교 1, 2학년에서 많이 나타난 점(교육부, 2023)을 참고로 하였다.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소재하는 3개 중학교를 임의로 선정한 후 각 학년별 11개 학급, 총 22개 학급의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한 학급 당 학생 수는 23명에서 26명이었다. 총 800부를 배부하였으며, 그 중 회수된 760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조사는 2023년 9월 11일부터 22일까지 각 학급별로 실시되었으며, 조사가 시작되기 전 모든 연구 대상으로부터 설문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연구 대상의 분포는 <표 1>과 같다. 성별은 남학생 371명(48.8%), 여학생 389명(51.2%), 학년은 중학교 1학년 373명(49.1%), 중학교 2학년 387명(50.9%)으로 성별 및 학년에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표 1> 연구 대상의 분포

명(%)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전체
남학생	180(23.7)	191(25.1)	371(48.8)
여학생	193(25.4)	196(25.8)	389(51.2)
전체	373(49.1)	387(50.9)	760(100.0)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측정도구

1) 가해동조행동 및 방관행동

청소년의 사이버 괴롭힘에서 가해동조행동 및 방관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Baker(2014)가 사용한 사이버 괴롭힘 참여행동 척도를 바탕으로 허연주(2019)와 서미정(2021b)이 사용한 문항을 재구성하였다. 허연주(2019)의 '사이버 괴롭힘 참여행동' 척도 중 가해동조행동과 방관행동을 측정하는 문항과 서미정(2021b)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이버 괴롭힘 관련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한 결과에서 가해동조행동과 방관행동과 관련된 내용을 참고하였다.

가해동조행동은 사이버 괴롭힘 상황에서 가해행동을 부추기거나, 피해자를 괴롭히는 가해자의 행동에 동참하는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나는 사이버 괴롭힘을 당한 친구가 싫어할 만한 메시지나 댓글을 쓴 적이 있다.', '나는 메시지나 댓글을 통해 사이버 괴롭힘을 부추긴 적이 있다.' 등 총 6문항이다. 방관행동은 사이버 괴롭힘 상황에서 어떠한 개입이나 반응을 하지 않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나는 그룹채팅방에서 일어나는 괴롭힘과 관련된 댓글을 읽고 반응을 안 한 적이 있다(예, 읽씹하기 등).', '나는 사이버 괴롭힘 상황을 모른 척 한 적이 있다.' 등 총 6문항이다.

설문에 응답하기 전,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정의 ('사이버 괴롭힘이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또래 간의 괴롭힘 현상으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한 그룹채팅방, 온라인 게시판 등에서 일어나는 행동을 말합니다.')와 사이버 괴롭힘 행동에 대한 예시(예, 고의로 상대방을 비방하기, 협박하기, 놀리기, 소문 퍼뜨리기 등)를 제시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없다'(1점)에서 '매우 자주 있다'(5점)까지 응답할 수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이버 괴롭힘에서 가해동조행동 및 방관행동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값은 가해동조행동 .82, 방관행동 .91로 나타났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개인의 부정적 신념

개인의 부정적 신념은 개인이 사이버 괴롭힘을 나쁘다고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심홍진 외(2014)와 문선아(2016)의 '사이버불링 태도' 문항을 서미정(2021a)이 보완한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부정적 신념' 척도를 참고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은 '온라인상에서 어떤 친구를 비웃거나 욕하고 공개적으로 깎아내리는 것', '온라인상에서 어떤 친구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퍼뜨리는 것' 등 총 7문항이다. 각 문항은 '전혀 나쁘지 않다'(1점)에서 '매우 나쁘다'(5점)까지 응답하게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이 사이버 괴롭힘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값은 .98로 나타났다.

3) 개인의 도덕적 이탈

개인의 도덕적 이탈은 자신의 비도덕적인 행동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하는 인지적 왜곡을 말한다(Bandura, 2002). 개인의 도덕적 이탈을 측정하기 위해 Bandura 등(1996)이 제작한 '도덕적 이탈 기제(mechanisms of moral disengagement)'를 기초로 Bussey 등(2015)이 사이버 괴롭힘에서 도덕적 이탈을 측정하기 위해 구성한 척도를 참고로 재구성하였다.

Bussey 등(2015)의 척도는 도덕적 이탈을 도덕적 정당화, 완곡한 언어, 상대적 비교, 책임전가, 책임분산, 결과 왜곡, 비인간화, 비난의 귀인 등 총 8개 하위요인별로 각 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의 예는 '나와 친구를 놀리는 사람에게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사용해서 나쁜 메시지를 보내도 괜찮다.'(도덕적 정당화), '누군가에 대한 안 좋은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일종의 장난이다.'(완곡한 언어) 등 총 16문항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응답하게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이 사이버 괴롭힘을 도덕적으로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는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값은 .88로 나타났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4) 집단의 부정적 신념

집단의 부정적 신념은 사이버 괴롭힘을 또래집단이 얼마나 나쁘다고 인식하는지를 개인이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심홍진 외(2014)와 문선아(2016)의 '사이버불링 태도' 문항을 서미정(2021a)이 보완한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부정적 신념' 척도를 참고로 학급의 친구들이 사이버 괴롭힘을 나쁘게 생각하는 정도를 묻는 문항으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예를 들면, '온라인상에서 어떤 친구를 비웃거나 욕하고 공개적으로 깎아내리는 것', '온라인상에서 어떤 친구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퍼뜨리는 것' 등 총 7문항이다. 각 문항은 '전혀 나쁘지 않다'(1점)에서 '매우 나쁘다'(5점)까지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급 친구들이 사이버 괴롭힘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값은 .98로 나타났다.

5) 집단의 도덕적 이탈

집단의 도덕적 이탈은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집단 내에서 비도덕적인 행동의 결과를 왜곡하고 합리화하는 등 집단이 인지적 왜곡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Pozzoli et al., 2012). 집단의 도덕적 이탈을 측정하기 위해 Gini 등(2014)이 오프라인 괴롭힘 상황에 맞게 구성한 척도를 Allison(2022)이 사이버 괴롭힘 상황에 맞게 수정한 '집단의 도덕적 이탈 척도'를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Allison(2022)의 척도는 집단의 도덕적 이탈을 도덕적 정당화, 완곡한 언어, 상대적 비교, 책임전가, 책임분산, 결과 왜곡, 비인간화, 비난의 귀인 등 총 8개의 하위요인별 각 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예를 들면, '누군가에 대한 안 좋은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일종의 장난이다.'(완곡한 언어), '친구들이 강제로 시켜서 안 좋은 댓글을 작성한 친구를 비난할 수는 없다.'(책임전가) 등 16문항이다. 각 문항에 대해 학급의 몇 %의 친구들이 도덕적 이탈의 문항을 생각하는지를 '전혀 없음(0%)'(0점)에서 '전부(100%)'(4점)까지 응답하게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집단이 사이버 괴롭힘을 도덕적으로 합리화거나 정당화하는 것으로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개인이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값은 .95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연구 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첨도, 왜도 등 기술통계치를 산출하였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을 사용하여 내적일관성을 확인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라 실시한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청소년의 사이버 괴롭힘에서 개인의 부정적 신념 및 도덕적 이탈과 가해동조행동 및 방관행동 간의 관계에서 집단의 부정적 신념과 집단의 도덕적 이탈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의 1단계에서는 통제변인인 성별과 독립변인(개인의 부정적 신념, 개인의 도덕적 이탈)을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는 조절변인(집단의 부정적 신념, 집단의 도덕적 이탈)을 투입하였으며, 3단계에서는 조절변인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연구 변인들의 척도의 측정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개인의 부정적 신념, 개인의 도덕적 이탈, 집단의 부정적 신념, 집단의 도덕적 이탈은 표준화 점수를 사용하였다.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상호작용항이 유의하게 나타나는 경우, Hayes(2017)의 PROCESS macro (Model 2)를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조절변수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1 표준편차 낮은 집단(M-1SD), 평균인 집단(M), 1 표준편차 높은 집단(M+1SD)으로 구분한 후 조건부 효과를 검증하고 단순 기울기 그래프를 제시하였다(Aiken et al., 1991; Hayes & Matthes, 2009). 또한 조절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였으며, 신뢰구간의 하한값(LLCI)과 상한값(ULCI) 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으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자료분석에는 SPSS 24.0(IBM Co., Armonk, NY)과 SPSS PROCESS macro version 4.2(Hayes, 2017)가 사용되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Ⅳ. 연구결과

1. 연구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치를 산출하고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연구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성별은 개인의 부정적 신념(r=-.12, p<.01), 개인의 도덕적 이탈(r=-.14, p<.001), 집단의 부정적 신념(r=-.12, p<.01)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사이버 괴롭힘을 더 부정적인 행동으로 지각하고 있으며, 사이버 괴롭힘을 왜곡하거나 도덕적으로 합리화하는 수준이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낮음을 의미한다. 또한 남학생에 비하여 여학생이 또래집단에서 사이버 괴롭힘을 보다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가해동조행동은 방관행동(r=.42, p<.001), 개인의 도덕적 이탈(r=.28, p<.001), 집단의 도덕적 이탈(r=.16, p<.0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사이버 괴롭힘에서 가해행동을 지지하고 동참하는 가해동조행동에 참여할수록 사이버 괴롭힘 상황을 모르는 척하며 개입하려 하지 않는 방관행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개인과 또래집단이 사이버 괴롭힘 결과에 대해 합리화하는 인지적 왜곡을 보다 더 많이 할수록 가해동조행동이 증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가해동조행동은 집단의 부정적 신념(r=-.12, p<.01)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또래집단이 사이버 괴롭힘에 대해 부정적인 행동으로 생각한다고 개인이 지각할수록 가해동조행동이 감소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방관행동은 개인의 도덕적 이탈(r=.29, p<.001) 및 집단의 도덕적 이탈(r=.16, p<.0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개인 및 또래집단이 사이버 괴롭힘에 대해 피해자에게 원인이 있다고 귀인하거나 책임을 전가할수록 방관행동이 증가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방관행동은 집단의 부정적 신념(r=-.12, p<.01)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또래집단이 사이버 괴롭힘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지각할수록 방관행동이 감소 될 수 있음을 알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수 있다.

개인의 부정적 신념은 집단의 부정적 신념(r=.32, p<.0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즉 개인이 사이버 괴롭힘에 대해 부정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할수록 또래집단도 사이버 괴롭힘에 대해 부정적인 행동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개인이 지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의 도덕적 이탈은 집단의 부정적 신념(r=-.11, p<.01)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또래집단이 사이버 괴롭힘을 부정적인 행동이라 생각한다고 개인이 지각할수록 사이버 괴롭힘 결과를 합리화하거나 왜곡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개인의 도덕적 이탈은 집단의 도덕적 이탈(r=.34, p<.001)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또래집단이 사이버 괴롭힘 결과를 합리화하거나 왜곡할수록 개인도 이를 합리화하거나 왜곡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집단의 부정적 신념은 집단의 도덕적 이탈(r=-.09, p<.01)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또래집단이 사이버 괴롭힘 결과를 도덕적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개인이 지각할수록 또래집단이 사이버 괴롭힘을 부정적 행동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개인이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2> 연구 변인들의 기술통계치 및 상관관계

(N=760)

	1	2	3	4	5	6	7
1. 성별	1						
2. 가해동조행동	.07	1					
3. 방관행동	.01	.42***	1				
4. 개인의 부정적 신념	-.12**	-.07	.01	1			
5. 개인의 도덕적 이탈	-.14***	.28***	.29***	.01	1		
6. 집단의 부정적 신념	-.12**	-.12**	-.11**	.32***	-.11**	1	
7. 집단의 도덕적 이탈	-.06	.16***	.16***	.05	.34***	-.09*	1
척도의 점수 범위	-	1~5	1~5	1~5	1~5	1~5	0~4
평균(표준편차)	-	1.23(.41)	1.77(.90)	4.60(.91)	1.71(.64)	4.53(.93)	.99(.93)
왜도(첨도)	-	3.07(14.40)	1.02(.12)	-3.23(9.79)	1.00(.09)	-2.52(5.94)	1.11(1.18)

1) 성별: 여학생 0, 남학생 1
2) *p<.05, **p<.01, ***p<.001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개인의 부정적 신념 및 도덕적 이탈과 가해동조행동 간의 관계에서 집단의 부정적 신념과 집단의 도덕적 이탈의 조절효과

1) 개인의 부정적 신념과 가해동조행동 간의 관계에서 집단의 부정적 신념과 집단의 도덕적 이탈의 조절효과

개인의 부정적 신념과 가해동조행동 간의 관계에서 집단의 부정적 신념과 집단의 도덕적 이탈의 조절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분산팽창계수(VIF)는 1.02～1.59로 10 이하였으며, 공차한계는 0.63～0.98로 0.1 이상이므로 변인들 간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에서는 통제변인인 성별과 독립변인인 개인의 부정적 신념을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는 조절변인인 집단의 부정적 신념, 집단의 도덕적 이탈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3단계에서 조절변인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한 결과 가해동조행동의 설명력은 총 6.4%로 2단계에 비해 2.5% 증가되었다.

3단계에서 변인별 주효과를 살펴보면, 통제변인인 성별은 가해동조행동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독립변인인 개인의 부정적 신념(β=-.130, p<.01)과 조절변인인 집단의 부정적 신념(β=-.092, p<.05)은 가해동조행동에 대해 유의미한 부적 영향이 나타났다. 이는 개인이 사이버 괴롭힘을 부정적 행동이라 생각하고, 또래집단이 사이버 괴롭힘을 부정적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개인이 지각할수록 가해동조행동에 덜 참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절변인인 집단의 도덕적 이탈(β=.159, p<.001)은 가해동조행동에 대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이 나타났다. 이는 또래집단이 사이버 괴롭힘을 도덕적으로 정당한 행동이라 생각한다고 개인이 지각할수록 가해동조행동에 더욱 참여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개인의 부정적 신념과 집단의 도덕적 이탈의 상호작용항(β=-.166, p<.001)이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개인의 부정적 신념과 집단의 부정적 신념의 상호작용항은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청소년의 사이버 괴롭힘에서 개인의 부정적 신념과 가해동조행동 간의 관계가 집단의 도덕적 이탈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수준에 따라 달라짐을 의미한다.

<표 3> 개인의 부정적 신념과 가해동조행동 간의 관계에서 집단의 부정적 신념과 집단의 도덕적 이탈의 조절효과

단계	변인	B	SE	β	R^2	$\triangle R^2$
1	성별	.034	.031	.042	.007	
	개인의 부정적 신념(A)	-.028	.016	-.069		
2	성별	.036	.031	.045	.039	.032***
	개인의 부정적 신념(A)	-.022	.016	-.054		
	집단의 부정적 신념(B)	-.028	.016	-.070		
	집단의 도덕적 이탈(C)	.063	.015	.159***		
3	성별	.034	.030	.043	.064	.025***
	개인의 부정적 신념(A)	-.052	.018	-.130**		
	집단의 부정적 신념(B)	-.036	.017	-.092*		
	집단의 도덕적 이탈(C)	.063	.015	.159***		
	A × B	-.005	.009	-.028		
	A × C	-.064	.016	-.166***		

*p<.05, **p<.01, ***p<.001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집단의 도덕적 이탈 수준에 따라 개인의 부정적 신념과 가해동조행동 간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기 위해 단순 기울기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집단의 도덕적 이탈이 평균보다 1 표준편차 높은 집단(M+1SD)의 단순 기울기(B= -.119, 95% CI=[-.174, -.064])와 평균인 집단(M)의 단순 기울기(B=-.052, 95% CI=[-.087, -.017])는 신뢰구간의 하한값(LLCI)과 상한값(ULCI)의 95%의 신뢰구간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평균보다 1 표준편차 낮은 집단(M-1SD)의 단순 기울기(B=018, 95% CI=[-.019, .054])는 신뢰구간의 하한값(LLCI)과 상한값(ULCI)의 95%의 신뢰구간 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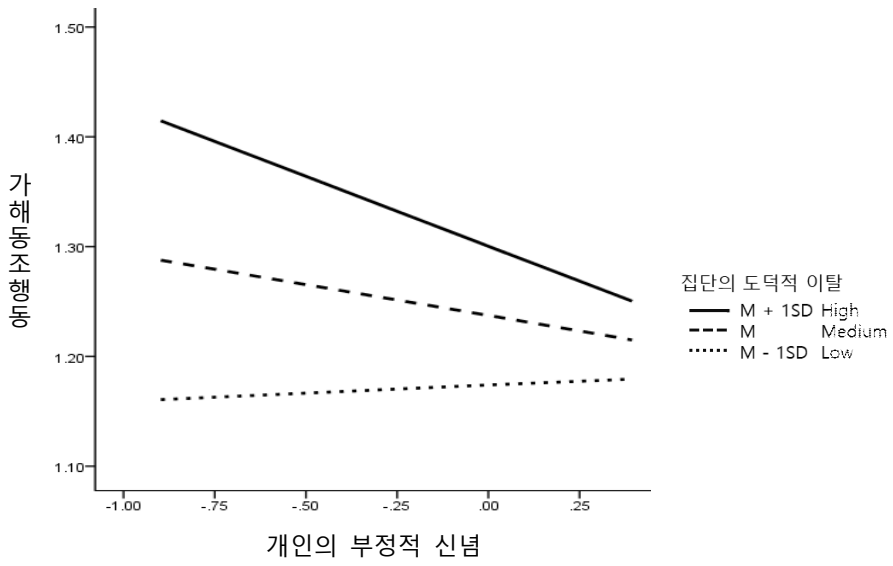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4> 개인의 부정적 신념과 가해동조행동 간의 관계에서 집단의 도덕적 이탈의 단순 기울기 검증 결과

집단의 도덕적 이탈	B	SE	t	95%	
				LLCI	ULCI
M-1SD	.018	.019	.952	-.019	.054
M	-.052	.018	-2.896**	-.087	-.017
M+1SD	-.119	.028	-4.232***	-.174	-.064

**p<.01, ***p<.001

단순 기울기 검증의 결과를 시각화하여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그 결과 사이버 괴롭힘에서 집단의 도덕적 이탈을 평균 보다 높게 지각하는 청소년의 경우 개인의 부정적 신념이 낮을수록 가해동조행동에 더욱 참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집단의 도덕적 이탈을 평균보다 1 표준편차 낮게 지각하는 청소년의 경우 개인의 부정적 신념이 낮더라도 가해동조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또래집단이 사이버 괴롭힘에 대하여 합리화하거나 인지 왜곡하는 정도를 낮출 경우, 개인의 부정적 신념이 낮아도 가해동조행동에 대한 참여가 낮아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2] 가해동조행동에 대한 개인의 부정적 신념과 집단의 도덕적 이탈의 상호작용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개인의 도덕적 이탈과 가해동조행동 간의 관계에서 집단의 부정적 신념과 집단의 도덕적 이탈의 조절효과

개인의 도덕적 이탈과 가해동조행동 간의 관계에서 집단의 부정적 신념과 집단의 도덕적 이탈의 조절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분산팽창계수(VIF)는 1.02～1.39로 10 이하였으며, 공차한계는 0.72～0.98로 0.1 이상이므로 변인들 간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에서는 통제변인인 성별과 독립변인인 개인의 도덕적 이탈을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는 조절변인인 집단의 부정적 신념, 집단의 도덕적 이탈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3단계에서 조절변인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한 결과 가해동조행동의 설명력은 총 11.6%로 2단계에 비해 2.1% 증가되었다.

3단계에서 변인별 주효과를 살펴보면, 통제변인인 성별은 가해동조행동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독립변인인 개인의 도덕적 이탈(β=.258, p<.001)은 유의미한 정적 영향이 나타났다. 이는 개인이 사이버 괴롭힘에 대해 도덕적으로 합리화할수록 가해동조행동에 더욱 참여하게 됨을 의미한다. 조절별인인 집단의 부정적 신념(β=-.097, p<.05)은 유의미한 부적 영향이 나타났다. 이는 또래집단이 사이버 괴롭힘에 대해 부정적인 행동으로 생각한다고 개인이 지각할수록 가해동조행동에 덜 참여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개인의 도덕적 이탈과 집단의 부정적 신념의 상호작용항(β=-.138, p<.001)이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개인의 도덕적 이탈과 집단의 도덕적 이탈의 상호작용항은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청소년의 사이버 괴롭힘에서 개인의 도덕적 이탈과 가해동조행동 간의 관계가 집단의 부정적 신념의 수준에 따라 달라짐을 보여준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5> 개인의 도덕적 이탈과 가해동조행동 간의 관계에서 집단의 부정적 신념과 집단의 도덕적 이탈의 조절효과

단계	변인	B	SE	β	R^2	$\triangle R^2$
1	성별	.069	.030	.087*	.087	
	개인의 도덕적 이탈(A)	.119	.015	.293***		
2	성별	.063	.030	.079*	.096	.009*
	개인의 도덕적 이탈(A)	.106	.016	.260***		
	집단의 부정적 신념(B)	-.026	.015	-.065		
	집단의 도덕적 이탈(C)	.028	.016	.071		
3	성별	.053	.030	.067	.116	.021***
	개인의 도덕적 이탈(A)	.105	.017	.258***		
	집단의 부정적 신념(B)	-.038	.015	-.097*		
	집단의 도덕적 이탈(C)	.021	.016	.052		
	A × B	-.051	.014	-.138***		
	A × C	-.016	.012	-.052		

*p<.05, ***p<.001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집단의 부정적 신념의 수준에 따라 개인의 도덕적 이탈과 가해동조행동 간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단순 기울기 검증을 실시한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집단의 부정적 신념이 평균보다 1 표준편차 높은 집단(M+1SD)의 단순 기울기(B= .087, 95% CI=[.049, .124]), 평균인 집단(M)의 단순 기울기(B= .113, 95% CI=[.081, .145])와 평균보다 1 표준편차 낮은 집단(M-1SD)의 단순 기울기(B= .166, 95% CI=[.128, .204]) 모두 신뢰구간의 하한값(LLCI)과 상한값(ULCI)의 95%의 신뢰구간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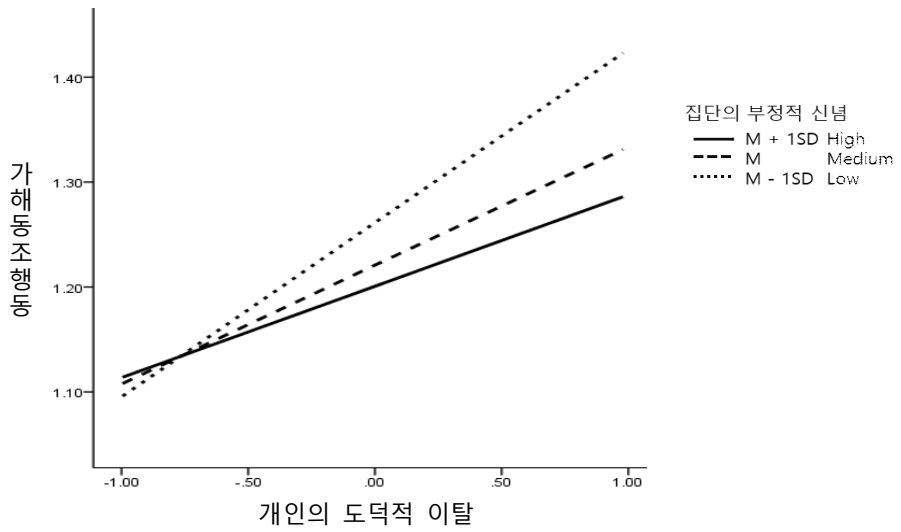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6〉 개인의 도덕적 이탈과 가해동조행동 간의 관계에서 집단의 부정적 신념의 단순 기울기 검증결과

집단의 부정적 신념	B	SE	t	95%	
				LLCI	ULCI
M-1SD	.166	.019	8.596***	.128	.204
M	.113	.016	6.954***	.081	.145
M+1SD	.087	.019	4.564***	.049	.124

*** $p<.001$

단순 기울기 검증의 결과를 시각화하여 나타내면 [그림 3]과 같다. 그 결과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집단의 부정적 신념이 낮을수록 기울기가 증가하였다. 즉 집단의 부정적 신념을 낮게 지각하는 청소년들은 개인의 도덕적 이탈에 따른 가해동조행동의 수준이 더 높은 반면에, 집단의 부정적 신념을 높게 지각하는 청소년들은 개인의 도덕적 이탈에 따른 가해동조행동의 수준이 비교적 적게 증가함을 나타낸다. 이는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또래집단의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을 높일수록 개인의 도덕적 이탈이 높더라도 가해동조행동에 대한 참여가 낮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3] 가해동조행동에 대한 개인의 도덕적 이탈과 집단의 부정적 신념의 상호작용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3. 개인의 부정적 신념 및 도덕적 이탈과 방관행동 간의 관계에서 집단의 부정적 신념과 집단의 도덕적 이탈의 조절효과

1) 개인의 부정적 신념과 방관행동 간의 관계에서 집단의 부정적 신념과 집단의 도덕적 이탈의 조절효과

개인의 부정적 신념과 방관행동 간의 관계에서 집단의 부정적 신념과 집단의 도덕적 이탈의 조절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분산팽창계수(VIF)는 1.02~1.54로 10 이하였으며, 공차한계는 0.65~0.98로 0.1 이상이므로 변인들 간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에서는 통제변인인 성별과 독립변인인 개인의 부정적 신념을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는 조절변인인 집단의 부정적 신념, 집단의 도덕적 이탈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3단계에서는 조절변인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한 결과 방관행동의 설명력은 총 4.9%로 2단계에 비해 1.6% 증가되었다.

3단계에서 변인별 주효과를 살펴보면, 통제변인인 성별과 독립변인인 개인의 부정적 신념은 방관행동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조절변인인 집단의 부정적 신념(β=-.130, p<.01)은 유의미한 부적 영향이 나타났다. 이는 또래집단이 사이버 괴롭힘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개인이 지각할수록 방관행동에 덜 참여하게 됨을 의미한다. 집단의 도덕적 이탈(β=.141, p<.001)은 유의미한 정적 영향이 나타났다. 이는 또래집단이 사이버 괴롭힘 결과를 도덕적으로 합리화한다고 개인이 지각할수록 방관행동에 보다 더 참여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개인의 부정적 신념과 집단의 도덕적 이탈의 상호작용항(β=-.102, p<.001)은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개인의 부정적 신념과 집단의 부정적 신념의 상호작용항은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청소년의 사이버 괴롭힘에서 개인의 부정적 신념과 방관행동 간의 관계가 집단의 도덕적 이탈의 수준에 따라 달라짐을 보여준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7> 개인의 부정적 신념과 방관행동 간의 관계에서 집단의 부정적 신념과 집단의 도덕적 이탈의 조절효과

단계	변인	B	SE	β	R^2	$\triangle R^2$
1	성별	-.023	.070	-.013	.001	
	개인의 부정적 신념(A)	-.004	.036	-.004		
2	성별	-.023	.069	-.013	.033	.032***
	개인의 부정적 신념(A)	.018	.038	.019		
	집단의 부정적 신념(B)	-.088	.036	-.098*		
	집단의 도덕적 이탈(C)	.132	.035	.146***		
3	성별	-.020	.069	-.011	.049	.016**
	개인의 부정적 신념(A)	-.046	.042	-.049		
	집단의 부정적 신념(B)	-.117	.038	-.130**		
	집단의 도덕적 이탈(C)	.128	.035	.141***		
	A × B	-.036	.021	-.080		
	A × C	-.090	.038	-.102*		

*p<.05, **p<.01, ***p<.001

사이버 괴롭힘에서 집단의 도덕적 이탈의 수준에 따라 개인의 부정적 신념과 방관행동 간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단순 기울기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8>에 제시하였다. 집단의 도덕적 이탈이 평균보다 1 표준편차 높은 집단(M+1SD)은 단순 기울기가(B=-.153, 95% CI=[-.282, -.024]) 신뢰구간 하한값(LLCI)과 상한값(ULCI)의 95% 신뢰구간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평균인 집단(M)의 단순 기울기(B=-.045, 95% CI[-.127, .037])와 평균보다 1 표준편차 낮은 집단(M-1SD)의 단순 기울기(B=-.082, 95% CI[-.002, .167])는 신뢰구간의 하한값(LLCI)과 상한값(ULCI)의 95%의 신뢰구간 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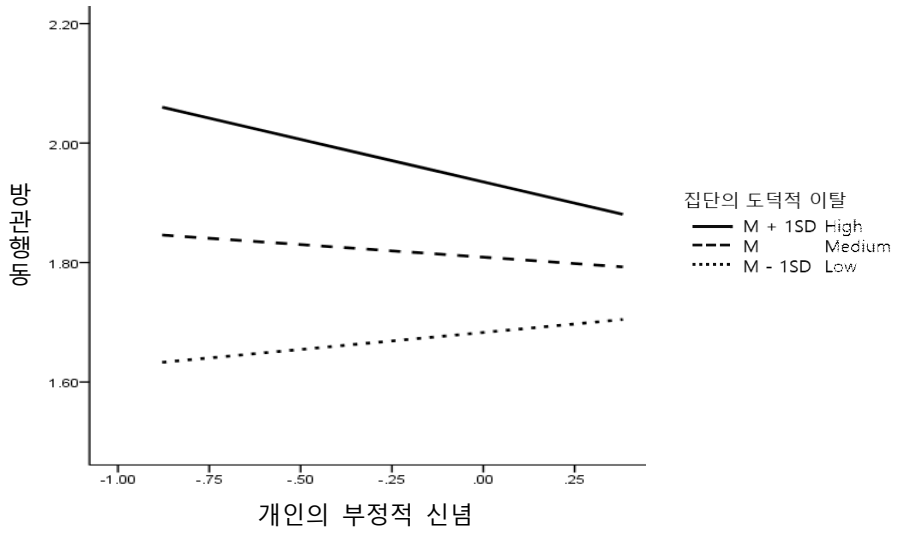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8> 개인의 부정적 신념과 방관행동 간의 관계에서 집단의 도덕적 이탈의 단순 기울기 검증결과

집단의 도덕적 이탈	B	SE	t	95%	
				LLCI	ULCI
M-1SD	.082	.043	1.907	-.002	.167
M	-.045	.047	-1.068	-.127	.037
M+1SD	-.153	.066	-2.337*	-.282	-.024

*p<.05

단순 기울기 검증의 결과를 시각화하여 나타내면 [그림 4]와 같다. 그 결과 사이버 괴롭힘에서 집단의 도덕적 이탈 정도를 평균보다 1 표준편차 높게 지각하는 청소년의 경우 개인의 부정적 신념이 낮더라도 방관행동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집단의 도덕적 이탈을 평균보다 낮게 지각하는 청소년의 경우 개인의 부정적 신념이 낮아도 방관행동이 높게 나타나지 않았다. 즉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또래 집단의 사이버 괴롭힘 결과에 대해 도덕적으로 합리화하거나 인지 왜곡을 낮춘다면, 개인의 부정적 신념이 낮아도 방관행동에 대한 참여가 낮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4] 방관행동에 대한 개인의 부정적 신념과 집단의 도덕적 이탈의 상호작용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개인의 도덕적 이탈과 방관행동 간의 관계에서 집단의 부정적 신념과 집단의 도덕적 이탈의 조절효과

개인의 도덕적 이탈과 방관행동 간의 관계에서 집단의 부정적 신념과 집단의 도덕적 이탈의 조절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9>에 제시하였다. 분산팽창계수(VIF)는 1.02~1.38로 10 이하였으며, 공차한계는 0.73~0.99로 0.1 이상이므로 변인들 간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에서는 통제변인인 성별과 독립변인인 개인의 도덕적 이탈을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는 조절변인인 집단의 부정적 신념, 집단의 도덕적 이탈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3단계에서 조절변인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한 결과 방관행동의 설명력은 총 13.5%로 2단계에 비해 3.1% 증가되었다.

3단계에서 변인별 주효과를 살펴보면, 통제변인인 성별과 조절변인인 집단의 도덕적 이탈은 방관행동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독립변인인 개인의 도덕적 이탈(β=.322, p<.001)은 방관행동에 대해 유의미한 정적 영향이 나타났다. 즉 개인이 사이버 괴롭힘 결과에 대해 도덕적으로 합리화하고 괴롭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다른 또래들과 분산할수록 방관행동에 더욱 참여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절변인인 집단의 부정적 신념(β=-.097, p<.01)은 방관행동에 대해 유의미한 부적 영향이 나타났다. 이는 또래집단이 사이버 괴롭힘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개인이 지각할수록 방관행동에 덜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개인의 도덕적 이탈과 집단의 부정적 신념의 상호작용항(β=-.112, p<.01)과 개인의 도덕적 이탈과 집단의 도덕적 이탈의 상호작용항(β=-.140, p<.001)이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사이버 괴롭힘에서 개인의 도덕적 이탈과 방관행동 간의 관계가 집단의 부정적 신념과 집단의 도덕적 이탈의 수준에 따라 달라짐을 보여준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9> 개인의 도덕적 이탈과 방관행동 간의 관계에서 집단의 부정적 신념과 집단의 도덕적 이탈의 조절효과

단계	변인	B	SE	β	R^2	$\triangle R^2$
1	성별	.050	.067	.028	.096	
	개인의 도덕적 이탈(A)	.286	.034	.313***		
2	성별	.035	.068	.020	.104	.008
	개인의 도덕적 이탈(A)	.260	.036	.284***		
	집단의 부정적 신념(B)	-.061	.033	-.068		
	집단의 도덕적 이탈(C)	.053	.035	.059		
3	성별	.027	.067	.015	.135	.031***
	개인의 도덕적 이탈(A)	.295	.039	.322***		
	집단의 부정적 신념(B)	-.086	.033	-.097*		
	집단의 도덕적 이탈(C)	.026	.035	.029		
	A × B	-.095	.032	-.112**		
	A × C	-.097	.027	-.140***		

*p<.05, **p<.01, ***p<.001

사이버 괴롭힘에서 집단의 부정적 신념과 집단의 도덕적 이탈의 수준에 따라 개인의 도덕적 이탈과 방관행동 간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단순 기울기 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개인의 도덕적 이탈과 방관행동 간의 관계에서 집단의 부정적 신념의 단순 기울기 검증 결과를 <표10>에 제시하였다. 집단의 부정적 신념이 평균보다 1 표준편차 높은 집단(M+1SD)의 단순 기울기(B= .257, 95% CI=[.173, .340]), 평균인 집단(M)의 단순 기울기(B= .305, 95% CI=[.234, .377])와 평균보다 1 표준편차 낮은 집단(M-1SD)의 단순 기울기(B= .403, 95% CI=[.317, .488]) 모두 신뢰구간의 하한값(LLCI)과 상한값(ULCI)의 95%의 신뢰구간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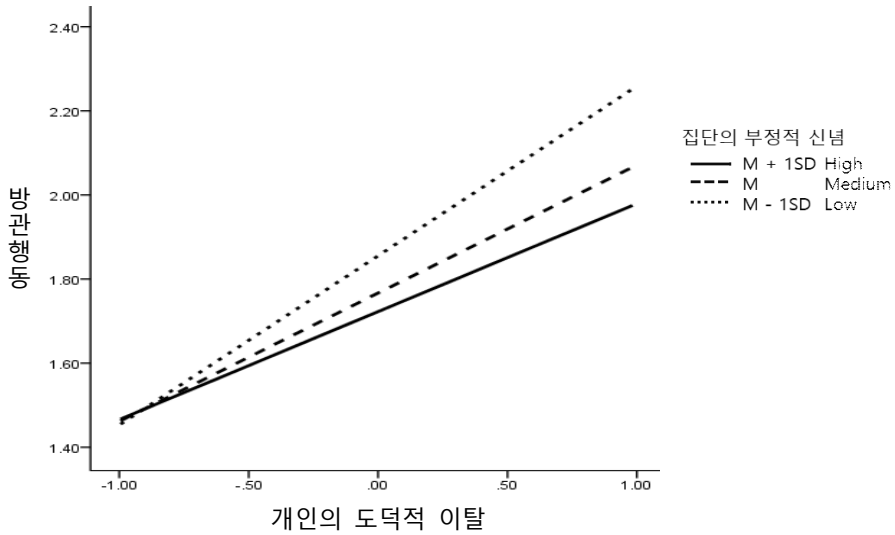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10> 개인의 도덕적 이탈과 방관행동 간의 관계에서 집단의 부정적 신념의 단순 기울기 검증결과

집단의 부정적 신념	B	SE	t	95%	
				LLCI	ULCI
M-1SD	.403	.044	9.255***	.317	.488
M	.305	.036	8.379***	.234	.377
M+1SD	.257	.042	6.048***	.173	.340

***p<.001

집단의 부정적 신념의 수준에 따른 개인의 도덕적 이탈과 방관행동 간의 관계를 단순 기울기 검증의 결과를 시각화하여 나타내면 [그림 5]와 같다. 그 결과 사이버 괴롭힘에서 집단의 부정적 신념이 낮을수록 기울기가 증가하였다. 이는 집단의 부정적 신념을 낮게 지각하는 청소년일수록 개인의 도덕적 이탈에 따른 방관행동이 더욱 많이 증가하는 반면에 집단의 부정적 신념을 높게 지각하는 청소년일수록 개인의 도덕적 이탈에 따른 방관행동이 비교적 적게 증가함을 나타낸다. 이는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또래집단의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을 높일수록 개인의 도덕적 이탈이 높더라도 방관행동에 대한 참여가 낮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5] 방관행동에 대한 개인의 도덕적 이탈과 집단의 부정적 신념의 상호작용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다음으로, 개인의 도덕적 이탈과 방관행동 간의 관계에서 집단의 도덕적 이탈의 단순 기울기 검증결과를 <표 11>에 제시하였다. 집단의 도덕적 이탈이 평균보다 1 표준편차 높은 집단(M+1SD)의 단순 기울기(B= .211, 95% CI=[.137, .286]), 평균인 집단(M)의 단순 기울기(B= .306, 95% CI=[.230, .383])와 평균보다 1 표준편차 낮은 집단(M-1SD)의 단순 기울기(B= .401, 95% CI=[.292, .510]) 모두 신뢰구간의 하한값(LLCI)과 상한값(ULCI)의 95%의 신뢰구간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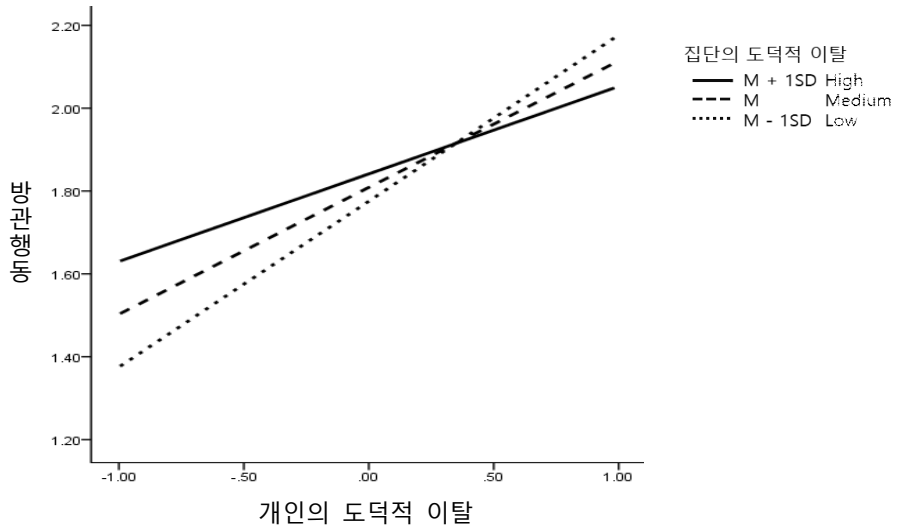
<표 11> 개인의 도덕적 이탈과 방관행동 간의 관계에서 집단의 도덕적 이탈의 단순 기울기 검증결과

집단의 도덕적 이탈	B	SE	t	95%	
				LLCI	ULCI
M-1SD	.401	.056	7.199***	.292	.510
M	.306	.039	7.846***	.230	.383
M+1SD	.211	.038	5.577***	.137	.286

***p<.001

집단의 도덕적 이탈의 수준에 따른 개인의 도덕적 이탈과 방관행동 간의 단순 기울기 검증의 결과를 시각화하여 나타내면 [그림 6]과 같다. 그 결과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집단의 도덕적 이탈이 낮을수록 기울기가 증가하였다. 이는 집단의 도덕적 이탈을 높게 지각하는 청소년의 경우 개인의 도덕적 이탈 수준이 낮아지더라도 방관행동의 감소로 이어지는 정도가 미미한 반면에, 집단의 도덕적 이탈을 낮게 지각하는 청소년의 경우 개인의 도덕적 이탈이 낮아짐에 따라 방관행동의 참여정도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청소년들이 또래집단이 사이버 괴롭힘 결과에 대하여 합리화하거나 인지 왜곡하는 집단의 도덕적 이탈을 낮게 지각하더라도, 개인이 사이버 괴롭힘 결과에 대해 합리화하고 인지 왜곡을 할수록 방관행동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림 6] 방관행동에 대한 개인의 도덕적 이탈과 집단의 도덕적 이탈의 상호작용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Ⅴ. 논의

본 연구는 청소년기 사이버 괴롭힘의 감소 및 예방을 위해 사이버 괴롭힘을 강화하는 가해동조행동 및 방관행동에 주목하였다. 또한 사회인지이론의 관점에서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부정적 신념과 도덕적 이탈의 개인과 집단 간 상호작용을 통해 가해동조행동과 방관행동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1, 2학년 남, 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이버 괴롭힘에서 개인의 부정적 신념 및 도덕적 이탈과 가해동조행동 및 방관행동 간의 관계에서 집단의 부정적 신념과 집단의 도덕적 이탈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에 대해 선행연구와 관련하여 논의하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가해동조행동에 참여할수록 방관행동의 참여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이버 괴롭힘에서 가해행동에 동참하고 지지하는 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은 괴롭힘을 보고도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고 묵인하는 행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이버 괴롭힘에서 가해동조행동과 방관행동 간의 높은 관련성을 보고한 선행연구들(고혜빈, 이소연, 2021; 이소영, 김현수, 2020; Jeong et al., 2022)과 일치한다. 이는 청소년들이 사이버 괴롭힘에서 하나의 역할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역할을 중복해서 참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가해동조행동은 적극적으로 가해행동을 지지하며, 방관행동은 가해행동을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역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김부경, 2022; Hong & Lee, 2022; Seo, 2023). 따라서 청소년들이 사이버 괴롭힘에서 가해동조행동 뿐만 아니라 방관행동에도 참여하지 않도록 개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사이버 괴롭힘에서 개인 및 집단의 사회인지적 요인 간에 유의미한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즉 개인의 부정적 신념은 집단의 부정적 신념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오프라인 괴롭힘에서 개인의 부정적 신념과 집단의 부정적 신념 간의 관련성을 보여준 선행연구와 같은 맥락이다(박서연, 서미정, 2023). 이는 청소년들이 사이버 괴롭힘을 부정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면 또래집단도 사이버 괴롭힘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개인이 지각하는 것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을 의미한다. 또한 개인의 도덕적 이탈은 집단의 도덕적 이탈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도덕적 이탈과 집단의 도덕적 이탈이 정적 관계를 보인 선행연구와 일치한다(Allison & Bussey, 2017). 이는 개인이 사이버 괴롭힘에 대해 피해자에게 원인이 있다고 귀인하거나 도덕적으로 합리적인 행동이라 생각할수록 또래집단도 사이버 괴롭힘에 대해 도덕적으로 정당한 행동이라 생각한다고 개인이 지각하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사이버 괴롭힘에서 개인의 부정적 신념과 가해동조행동 간의 관계는 집단의 도덕적 이탈의 수준에 따라 달랐다. 즉 집단의 도덕적 이탈을 평균보다 높게 지각하는 청소년들은 개인의 부정적 신념이 낮을수록 가해동조행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집단의 도덕적 이탈의 수준이 평균보다 1 표준편차 낮을 때에는 개인의 부정적 신념이 낮아도 가해동조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해동조행동에 대한 개인의 부정적 신념의 영향력이 집단의 도덕적 이탈에 따라 달라짐을 보여주어, 집단의 도덕적 이탈을 강조한 사회인지이론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Allison과 Bussey(2017)의 연구에서는 개인의 도덕적 기준 보다 또래집단의 도덕적 이탈의 수준이 높은 경우 괴롭힘 행동과 같은 부정적 행동에 대한 죄책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가해동조행동 개입에 있어,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부정적인 지각이 낮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집단의 도덕적 이탈을 낮출 수 있도록 개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사이버 괴롭힘에서 개인의 도덕적 이탈과 가해동조행동 간의 관계는 집단의 부정적 신념에 의해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집단이 사이버 괴롭힘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각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개인의 도덕적 이탈이 높을수록 가해동조행동에 더욱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집단이 사이버 괴롭힘을 부정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지각하는 청소년들은 개인의 도덕적 이탈에 의한 가해동조행동의 증가가 비교적 적게 나타났다. 이는 사이버 괴롭힘에 대해 개인이 도덕적으로 이탈될수록 가해동조행동에 더욱 참여하지만, 이러한 영향을 집단의 부정적 신념이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에 집단의 압력으로 인해 집단의 부정적 신념에 동조하는 수준이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김지은, 박혜준, 2016), 또래집단이 사이버 괴롭힘에 대해 부정적인 행동이라고 지각하는 수준을 높게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셋째, 사이버 괴롭힘에서 개인의 부정적 신념과 방관행동 간의 관계는 집단의 도덕적 이탈 수준에 따라 달라졌다. 즉 집단의 도덕적 이탈의 수준이 평균보다 1 표준편차 높은 높을 때, 개인의 부정적 신념이 낮을수록 방관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집단의 도덕적 이탈을 평균보다 낮게 지각하는 청소년들은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개인의 부정적 신념 수준이 낮더라도 방관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집단의 도덕적 이탈을 높게 지각하는 청소년이 개인의 도덕적 기준이 낮을수록 방관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Allison & Bussey, 2017)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집단의 부정적 신념이 낮을수록 사이버 괴롭힘에서 개인의 도덕적 이탈과 방관행동 간의 관계는 집단의 부정적 신념과 집단의 도덕적 이탈 모두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먼저, 집단의 부정적 신념은 세 집단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기울기에서 차이를 보였다. 집단의 부정적 신념의 수준을 높게 지각할 때, 개인의 도덕적 이탈이 낮을수록 방관행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은 반면, 집단의 부정적 신념을 낮게 지각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도덕적 이탈이 높을수록 방관행동에 더욱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도덕적 이탈이 낮고 집단의 부정적 신념이 높을수록 방관행동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선행연구(Thornberg et al., 2021)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집단의 도덕적 이탈도 세 집단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지만, 기울기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즉 또래집단의 도덕적 이탈을 높게 지각하는 청소년들은 개인의 도덕적 이탈 수준이 낮아지더라도 방관행동의 감소로 이어지는 정도가 미미하였으나, 집단의 도덕적 이탈을 낮게 지각하는 청소년들은 개인의 도덕적 이탈 수준이 낮아짐에 따라 방관행동에 대한 참여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집단의 부정적 신념이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개인의 부정적 신념과 가해동조행동 및 방관행동 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결과는 개인의 신념과 집단의 신념이 상호작용하여 가해행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Almeida et al., 2010)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집단의 부정적 신념이 가해동조행동 및 방관행동을 독립적으로 감소시키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집단적으로 사이버 괴롭힘을 부정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개인이 지각하고 있다면 가해동조행동 및 방관행동이 감소할 것으로 보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인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집단의 부정적 신념은 개인의 도덕적 이탈과 가해동조행동 및 방관행동의 관계를 완화하였으며, 집단의 도덕적 이탈은 개인의 부정적 신념 및 개인의 도덕적 이탈과 가해동조행동 및 방관행동의 관계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인지이론의 틀을 적용하여 개인과 집단의 상호작용을 통한 가해동조행동과 방관행동을 이해하였다는 점이다. 즉 사이버 괴롭힘에서 개인의 부정적 신념 및 도덕적 이탈뿐만 아니라 집단의 부정적 신념 및 도덕적 이탈을 함께 고려해봄으로써 청소년의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개인 및 집단의 사회인지적 차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둘째, 개인 및 집단의 부정적 신념 및 도덕적 이탈과 사이버 괴롭힘에서 가해동조행동 및 방관행동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선행연구들에서는 오프라인 괴롭힘에서의 부정적 신념과 도덕적 이탈을 측정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부정적 신념 및 도덕적 이탈을 측정함으로써 가해동조행동 및 방관행동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의의와 함께 본 연구가 가지는 제한점을 토대로 추후 연구에 대해 제언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개인 및 집단의 부정적 신념을 측정함에 있어 괴롭힘 가해행동에 대한 내용으로 측정하였다. 그러나 괴롭힘에 대한 부정적 신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특정 신념과 관련된 행동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박서연, 서미정, 2023; Werner & Nixon, 2005). 추후 연구에서는 사이버 괴롭힘 가해동조행동 및 방관행동에 대한 부정적 신념을 측정하여 신념과 행동 간의 관련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청소년기 도덕적 이탈의 경향을 발달적 관점에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Kuilman et al., 2019). 선행연구에서 도덕적 이탈은 초기 청소년기에는 증가하지만, 청소년기 후반부터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aciello et al., 2008; Robson & Witenberg, 2013; Wang et al., 2017).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연령 증가에 따른 개인 및 집단의 도덕적 이탈의 변화를 고려하여 사이버 괴롭힘 가해동조행동 및 방관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사이버 괴롭힘에서 집단의 부정적 신념을 측정함에 있어 개인이 지각하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는 집단의 부정적 신념을 측정하였다. 그러나 집단의 부정적 신념은 실제 집단이 공유하는 규준으로도 측정이 가능하다(경선정, 신희영, 2023). 추후 연구에서는 집단의 신념을 집단이 실제 공유하는 신념과 개인이 지각하는 또래집단의 신념을 비교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참고문헌>

경선정, 신희영(2023). 집단 규준과 지각된 규준이 또래 괴롭힘의방관 및 방어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6*(3), 31-54.

고아라, 최새은(2016). 사이버 불링을 목격한 중학생 주변인의 실태 및 영향 변인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8*(4), 79-95.

고혜빈, 이소연(2021). 고등학생의 공격신념과 공감능력이 사이버불링 참여 유형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상담연구, 29*(1), 21-43.

교육부(2021).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교육부(2022). 2021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발표.

교육부(2023).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발표.

구영롱, 박종효2022).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과 자녀의 사이버괴롭힘 가해경험의 관계 탐색: 도덕적 이탈의 매개효과와 지각된 반괴롭힘 (Anti-bullying) 학급규준의 조절된 매개효과 및 성별과 학교급 차이. *교육심리연구, 36*(3), 355-377.

김봉섭, 이원상, 임상수(2013). 사이버 불링에 대한 이해와 대응 방안. 정보문화 이슈리포트, 13-01.

김부경(2022). 사이버불링 참여 역할 잠재계층유형과 예측요인. *상담심리교육복지, 9*(6), 29-43.

김지원, 한세영(2020). 집단의 도덕적 이탈이 남녀 청소년의 또래괴롭힘 방관 및 방어 행동에 미치는 영향: 또래동조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41*(3), 51-63.

김지은, 박혜준(2016). 또래괴롭힘 상황에서 주변또래의 잠재적 참여유형에 따른 사회인지적 특성 비교. *아동학회지, 37*(4), 69-81.

모정은, 오인수, 김연희.(2014). 초등학생의 사이버 괴롭힘 가해 위험요인 검사문항 개발 및 타당화. *초등교육연구, 27*(4), 131-155.

문선아(2016).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서연, 서미정(2023). 청소년의 반응적 공격성과 또래괴롭힘 가해동조행동 간의 관계: 가해동조행동에 대한 개인 및 학급의 부정적 신념의 조절효과. *아동학회지, 44*(2), 155-166.

서미정(2006). **또래괴롭힘 완화요인의 탐색 : 주변또래의 유형 분석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서미정(2013). 도덕적 이탈 및 도덕적 정서가 또래괴롭힘에 대한 가해동조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4*(6), 123-138.

서미정(2015a). 아동 후기 또래괴롭힘 참여자 역할의 안정성 및 변화와 환경적 특성과의 관계: 주변또래의 역할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36*(4), 17-32.

서미정(2015b). 가해행동에 대한 태도 및 공감이 또래괴롭힘 방관행동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감독과 교사감독의 조절효과. *한국아동복지학, 52*, 139-161.

서미정(2020). 청소년의 사이버 괴롭힘에서 주변인 경험: 그룹 대화방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3*(3), 65-88.

서미정(2021a). 오프라인 및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부정적 신념과 오프라인 괴롭힘이 청소년의 사이버 괴롭힘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32*(4), 629-640.

서미정(2021b). 청소년이 인식한 사이버 괴롭힘 해결 방안: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활용하여.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32*(2), 305-320.

송지연(2022). 사이버 괴롭힘 상황에서 주변인의 도덕적 판단, 도덕적 이탈, 성격적 신념이 방어 행동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9*(11), 705-724.

신현숙(2014). 공격성과 비방어적 주변인 행동의 관계: 괴롭힘 찬성태도와 위험부담감의 중다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1*(10), 119-146.

심미경, 서미정(2013). 또래괴롭힘에 대한 방관 및 방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학급 변인: 학급규범과 교사감독을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21*(2), 225-246.

심홍진, 한은영, 박병선, 박남기(2014).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동기와 통제 요인에 관한 연구: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

오인수, 김서정, 임영은(2019). 초등학생의 반괴롭힘 태도와 주변인 행동과의 관계: 지각된 교사개입의 조절효과. *한국초등교육, 30*(1), 205-219.

이소영, 김현수(2020). 청소년 사이버불링의 주변인 역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15*(3), 67-90.

이승은, 김은영, 김정민(2014). 아동·청소년의 도덕적 사고 왜곡과 또래괴롭힘 피해/가해 경험 간의 관계: 신체적, 언어적, 관계적 및 사이버 또래괴롭힘을 중심으로. *가정과 삶의질연구, 32*(3), 99-114.

이승현, 강지현, 이원상(2015).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481.

정완(2005). 사이버폭력의 피해실태와 대응방안. *피해자학연구, 13*(2), 329-359.

조윤오(2017). 청소년 사이버불링 유형화 연구: 상담가 의견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9(5), 303-330.

진천사, 오인수(2018). 루머 확산의 사이버 괴롭힘을 목격한 주변인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성별에 따른 심리적 변인의 차이를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19*(4), 995-1019.

최정아(2019). 중학생의 자살생각에 대한 사이버괴롭힘 피해 및 차별 경험의 영향. *보건사회연구, 39*(3), 280-313.

허연주(2019). **청소년 오프라인 괴롭힘 주변인의 심리적 특성에 따른 유형과 사이버 괴롭힘 참여행동.**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예지(2020). **사이버 괴롭힘 발생 가능 상황에서 주변인으로서 청소년의 도덕적 정서와 도덕적 정서귀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홍예지(2023). 사이버 괴롭힘 발생 가능 상황에서 주변인 유형에 미치는 청소년의 성, 도덕적 이탈과 공감의 영향. *아동학회지, 44*(1), 43-55.

Allison, K. (2022). *Bystanders' responses to witnessed incidents of cyberbullying: Independent and interactive influences on intervention.* Doctoral dissertation, Macquarie University.

Aiken, L. S., West, S. G., & Reno, R. R.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sage.

Allison, K. R., & Bussey, K. (2016). Cyber-bystanding in context: A review of the literature on witnesses' responses to cyberbullying.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65*, 183-194.

Allison, K. R., & Bussey, K. (2017). Individual and collective moral influences on intervention in cyberbullying. *Computers in Human Behavior, 74,* 7-15.

Almeida, A., Correia, I., & Marinho, S. (2010). Moral Disengagement, Normative Beliefs of Peer Group, and Attitudes Regarding Roles in Bullying. *Journal of School Violence, 9*(1), 23-36.

Barlińska, J., Szuster, A., & Winiewski, M. (2013). Cyberbullying among adolescent bystanders: Role of the communication medium, form of violence, and empathy. *Journal of Community & Applied Social Psychology, 23*(1), 37-51.

Baker, M. (2014). *Cyberbullying and the bystander: What promotes or inhibits adolescent participation?.* University of Exeter (United Kingdom).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Englewood Cliffs*, NJ,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3-28.

Bandura, A. (1991). Social cognitive theory of self-regulation.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248-287.

Bandura, A., Barbaranelli, C., Caprara, G. V., & Pastorelli, C. (1996). Mechanisms of moral disengagement in the exercise of moral ag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2), 364.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Freeman.

Bandura, A. (2002). Selective moral disengagement in the exercise of moral agency. *Journal of Moral Education, 31*(2), 101-119.

Bandura, A. (2006). Toward a psychology of human agency.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1*(2), 164-180.

Barlett, C. P., Helmstetter, K., & Gentile, D. A. (2016). The development of a new cyberbullying attitude measur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64*, 906-913.

Bastiaensens, S., Vandebosch, H., Poels, K., Van Cleemput, K., DeSmet, A., & De Bourdeaudhuij, I. (2014). Cyberbullying on social network sites. An experimen tal study into bystanders' behavioural intentions to help the victim or reinforce the bully. *Computers in Human Behavior, 31*, 259-271.

Beran, T., & Li, Q. (2005). Cyber-harassment: A study of a new method for an old behavior. *Journal of Educational Computing Research, 32*(3), 265.

Bjärehed, M., Thornberg, R., Wänström, L., & Gini, G. (2021). Individual moral disengagement and bullying among Swedish fifth graders: The role of collective moral disengagement and pro-bullying behavior within classroom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6*(17-18), 9576-9600.

Brody, N., & Vangelisti, A. L. (2016). Bystander intervention in cyberbullying. *Communication Monographs, 83*(1), 94-119.

Bussey, K., & Bandura, A. (1999). Social cognitive theory of gender development and differentiation. *Psychological Review, 106*(4), 676-713.

Bussey, K., Fitzpatrick, S., & Raman, A. (2015). The role of moral disengagement and self-efficacy in cyberbullying. *Journal of School Violence, 14*(1), 30-46.

Byers, D. S. (2016). Recognition of social pain among peers: Rethinking the role of bystanders in bullying and cyberbullying. *Smith College Studies in Social Work,*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86(4), 335-354.

Cassidy, W., Faucher, C., & Jackson, M. (2013). An essential library of international research in cyberbullying.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34*(6), 575-612.

DeSmet, A., Bastiaensens, S., Van Cleemput, K., Poels, K., Vandebosch, H., & De Bourdeaudhuij, I. (2012). Mobilizing bystanders of cyberbullying: an exploratory study into behavioural determinants of defending the victim. *Annual Review of Cybertherapy and Telemedicine, 10*, 58-63.

DeSmet, A., Bastiaensens, S., Van Cleemput, K., Poels, K., Vandebosch, H., Cardon, G., & De Bourdeaudhuij, I. (2016). Deciding whether to look after them, to like it, or leave it: A multidimensional analysis of predictors of positive and negative bystander behavior in cyberbullying among adolescent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57*, 398-415.

Ettekal, I., Kochenderfer-Ladd, B., & Ladd, G. W. (2015). A synthesis of person-and relational-level factors that influence bullying and bystanding behaviors: Toward an integrative framework.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23*, 75-86.

Fazio, R. H., & Olson, M. A. (2007). Attitudes: Foundations, functions, and consequences. *The Sag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123-145.

Fischer, P., Krueger, J. I., Greitemeyer, T., Vogrincic, C., Kastenmüller, A., Frey, D., ... & Kainbacher, M. (2011). The bystander-effect: a meta-analytic review on bystander intervention in dangerous and non-dangerous emergencies. *Psychological Bulletin, 137*(4), 517.

Francisco, S. M., Ferreira, P. C., & Veiga Simão, A. M. (2022). Behind the scenes of cyberbullying: Personal and normative beliefs across profiles and moral disengagement mechanisms. *International Journal of Adolescence and Youth, 27*(1), 337-361.

Gini, G., Pozzoli, T., & Bussey, K. (2015). The role of individual and collective moral disengagement in peer aggression and bystanding: A multilevel analysi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3*, 441-452.

Gini, G., Pozzoli, T., & Hymel, S. (2014). Moral disengagement among children and youth: A meta-analytic review of links to aggressive behavior. *Aggressive Behavior, 40*(1), 56-68.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Gini, G., Pozzoli, T., Borghi, F., & Franzoni, L. (2008). The role of bystanders in students' perception of bullying and sense of safety.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6*(6), 617-638.

Gini, G., Thornberg, R., Bussey, K., Angelini, F., & Pozzoli, T. (2022). Longitudinal links of individual and collective morality with adolescents' peer aggress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16.

González-Cabrera, J. M., León-Mejía, A., Machimbarrena, J. M., Balea, A., & Calvete, E. (2019).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cyberbullying triangulation questionnaire: A prevalence analysis through seven roles.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60*(2), 160-168.

Gualdo, A. M. G., Hunter, S. C., Durkin, K., Arnaiz, P., & Maquilón, J. J. (2015). The emotional impact of cyberbullying: Differences in perceptions and experiences as a function of role. *Computers & Education, 82*, 228-235.

Haslam, N. (2006). Dehumanization: An integrative review.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0*(3), 252-264.

Hayes, A. F. (2017).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Guilford publications.

Hayes, A. F., & Matthes, J. (2009). Computational procedures for probing interactions in OLS and logistic regression: SPSS and SAS implementations. *Behavior Research Methods, 41*(3), 924-936.

Heirman, W., Angelopoulos, S., Wegge, D., Vandebosch, H., Eggermont, S., & Walrave, M. (2015). Cyberbullying-entrenched or cyberbully-free classrooms? A class network and class composition approach.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20*(3), 260-277.

Hinduja, S., & Patchin, J. W. (2013). Social influences on cyberbullying behaviors among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2*, 711-722.

Hinduja, S., & Patchin, J. W. (2022). Bias-based cyberbullying among early adolescents: Associations with cognitive and affective empathy.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42*(9), 1204-1235.

Hong, Y. J., & Lee, K. (2022). Adolescent bystanders' moral emotions in cyberbullying.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43(3), 271-295.

Jeong, R., Gilbertson, M., Riffle, L. N., & Demaray, M. K. (2022). Participant role behavior in cyberbullying: an examination of moral disengagement among college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Bullying Prevention,* 1-13.

Juvonen, J., & Gross, E. F. (2008). Extending the school grounds?—Bullying experiences in cyberspace. *Journal of School Health, 78*(9), 496-505.

Kowalski, R. M., & Limber, S. P. (2007). Electronic bullying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1*(6), S22-S30.

Kowalski, R. M., & Limber, S. P. (2013). Psychological, physical, and academic correlates of cyberbullying and traditional bullying.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53*(1), S13-S20.

Kowalski, R. M., Limber, S. P., & McCord, A. (2019). A developmental approach to cyberbullying: Prevalence and protective factors.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45*, 20-32.

Kuilman, L., Jansen, G. J., Middel, B., Mulder, L. B., & Roodbol, P. F. (2019). Moral reasoning explained by personality traits and moral disengagement: A study among Dutch nurse practitioners and physician assistant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75*(6), 1252-1262.

Lenhart, A., Madden, M., Smith, A., Purcell, K., Zickuhr, K., & Rainie, L. (2011). Teens, Kindness and Cruelty on Social Network Sites: How American Teens Navigate the New World of "Digital Citizenship". *Pew Internet & American Life Project.*

Livingstone, S., Ólafsson, K., & Staksrud, E. (2013). Risky social networking practices among "underage" users: Lessons for evidence-based policy.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8*(3), 303-320.

Macaulay, P. J., Boulton, M. J., & Betts, L. R. (2019). Comparing early adolescents' positive bystander responses to cyberbullying and traditional bullying: The impact of severity and gender. *Journal of Technology in Behavioral Science, 4*, 253-261.

Marcum, C. D., Higgins, G. E., Freiburger, T. L., & Ricketts, M. L. (2012). Battle of the sexes: An examination of male and female cyber bullying. *International Journal*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of Cyber Criminology, 6(1), 904-911.

Menesini, E., Codecasa, E., Benelli, B., & Cowie, H. (2003). Enhancing children's responsibility to take action against bullying: Evaluation of a befriending intervention in Italian middle schools. Aggressive Behavior: *Official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Research on Aggression, 29*(1), 1-14.

Menesini, E., Palladino, B. E., & Nocentini, A. (2015). Emotions of moral disengagement, class norms, and bullying in adolescence: A multilevel approach. *Merrill-Palmer Quarterly, 61*(1), 124-143.

Mishna, F., Khoury-Kassabri, M., Gadalla, T., & Daciuk, J. (2012). Risk factors for involvement in cyber bullying: Victims, bullies and bully-victim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4*(1), 63-70.

Newman, R. S., & Murray, B. J. (2005). How students and teachers view the seriousness of peer harassment: When is it appropriate to seek help?.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7*(3), 347.

Oh, I., & Hazler, R. J. (2009). Contributions of personal and situational factors to bystanders' reactions to school bullying.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30*(3), 291-310.

Olenik-Shemesh, D., Heiman, T., & Eden, S. (2017). Bystanders' behavior in cyberbullying episodes: Active and passive patterns in the context of personal-socio-emotional factor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2*(1), 23-48.

Olweus, D. (1993). *Bullying at school: What we know and what we can do.* New York: Wiley-Blackwell.

Orpinas, P., & Horne, A. M. (2006). Bullies and victims: A challenge for schools. In J. R. Lutzker (Ed.), Preventing violence: Research and evidence-based intervention strategies (pp. 147-165).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aciello, M., Fida, R., Tramontano, C., Lupinetti, C., & Caprara, G. V. (2008). Stability and change of moral disengagement and its impact on aggression and violence in late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9*(5), 1288-1309.

Panumaporn, J., Hongsanguansri, S., Atsariyasing, W., & Kiatrungrit, K. (2020). Bystanders' behaviours and associated factors in cyberbullying. *General Psychiatry, 33*(3), 1-8.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Patchin, J. W., & Hinduja, S. (2006). Bullies move beyond the schoolyard: A preliminary look at cyberbullying. *Youth Violence and Juvenile Justice, 4*(2), 148-169.

Patchin, J. W., & Hinduja, S. (2011).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bullying among youth: A test of general strain theory. *Youth & Society, 43*(2), 727-751.

Patchin, J. W., & Hinduja, S. (2015). Measuring cyberbullying: Implications for research.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23*, 69-74.

Peled, Y., Medvin, M. B., Pieterse, E., & Domanski, L. (2019). Normative beliefs about cyberbullying: comparisons of Israeli and US youth. *Heliyon, 5*(12), 1-8.

Pepler, D., Mishna, F., Doucet, J., & Lameiro, M. (2021). Witnesses in cyberbullying: Roles and dilemmas. *Children & Schools, 43*(1), 45-53.

Perren, S., & Gutzwiller-Helfenfinger, E. (2012). Cyberbullying and traditional bullying in adolescence: Differential roles of moral disengagement, moral emotions, and moral values. *Europ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9*(2), 195-209.

Piccoli, V., Carnaghi, A., Grassi, M., Stragà, M., & Bianchi, M. (2020). Cyberbullying through the lens of social influence: Predicting cyberbullying perpetration from perceived peer-norm, cyberspace regulations and ingroup processe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102*, 260-273.

Pozzoli, T., Gini, G., & Vieno, A. (2012). Individual and class moral disengagement in bullying among elementary school children. *Aggressive Behavior, 38*(5), 378-388.

Quirk, R., & Campbell, M. (2015). On standby? A comparison of online and offline witnesses to bullying and their bystander behaviour. *Educational Psychology, 35*(4), 430-448.

Robson, C., & Witenberg, R. T. (2013). The influence of moral disengagement, morally based self-esteem, age, and gender on traditional bullying and cyberbullying. *Journal of School Violence, 12*(2), 211-231.

Romera, E. M., Casas, J. A., Gómez-Ortiz, O., & Ortega-Ruiz, R. (2019). Moral domain as a risk and protective factor against bullying. An integrating perspective review on the complexity of morality.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45*, 75-82.

Salmivalli, C. (2010). Bullying and the peer group: A review.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5*(2), 112-120.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Salmivalli, C., & Voeten, M. (2004). Connections between attitudes, group norms, and behaviour in bullying situ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8*(3), 246-258.

Salmivalli, C., Voeten, M., & Poskiparta, E. (2011). Bystanders matter: Associations between reinforcing, defending, and the frequency of bullying behavior in classrooms.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40*(5), 668-676.

Seo, M. (2023). Profiles of participant roles in offline bullying and cyberbullying and normative beliefs among Korean adolesc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47*(4), 317-327.

Shaffer, H. J. (1996). Understanding the means and objects of addiction: Technology, the internet, and gambling. *Journal of Gambling Studies, 12*, 461-469.

Sharma, D., Kishore, J., Sharma, N., & Duggal, M. (2017). Aggression in schools: cyberbullying and gender issues. *Asian Journal of Psychiatry, 29*, 142-145.

Shim, H., & Shin, E. (2016). Peer-group pressure as a moder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ttitude toward cyberbullying and cyberbullying behaviors on mobile instant messengers. *Telematics and Informatics, 33*(1), 17-24.

Shin, H. (2022). The role of perceived bullying norms in friendship dynamics: An examination of friendship selection and influence on bullying and victimiz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46*(5), 432-442.

Slonje, R., & Smith, P. K. (2008). Cyberbullying: Another main type of bullying?.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49*(2), 147-154.

Smith, P. K. (1991). The silent nightmare: Bullying and victimization in school peer groups. *The Psychologist, 4*, 243-248.

Smith, P. K., Mahdavi, J., Carvalho, M., Fisher, S., Russell, S., & Tippett, N. (2008). Cyberbullying, its forms and impact in secondary school pupil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9*, 376-385.

Swearer, S. M., Wang, C., Berry, B., & Myers, Z. R. (2014). Reducing bullying: Application of social cognitive theory. *Theory into Practice, 53*(4), 271-277.

Tankard, M. E., & Paluck, E. L. (2016). Norm perception as a vehicle for social change. *Social Issues and Policy Review, 10*(1), 181-211.

Thornberg, R., & Jungert, T. (2013). Bystander behavior in bullying situations: Basic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moral sensitivity, moral disengagement and defender self-efficacy. *Journal of Adolescence, 36*(3), 475-483.

Thornberg, R., Wänström, L., & Pozzoli, T. (2017). Peer victimisation and its relation to class relational climate and class moral disengagement among school children. *Educational Psychology, 37*(5), 524-536.

Thornberg, R., Wänström, L., Gini, G., Varjas, K., Meyers, J., Elmelid, R., ... & Mellander, E. (2021). Collective moral disengagement and its associations with bullying perpetration and victimization in students. *Educational Psychology, 41*(8), 952-966.

Van Cleemput, K., Vandebosch, H., & Pabian, S. (2014).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contextual factors that determine "helping," "joining in," and "doing nothing" when witnessing cyberbullying. *Aggressive Behavior, 40*(5), 383-396.

Veenstra, R., & Lodder, G. M. (2022). On the microfoundations of the link between classroom social norms and behavioral develop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46*(5), 453-460.

Veenstra, R., Dijkstra, J. K., & Kreager, D. (2018). *Pathways, networks, and norms: A sociological perspective on peer research. In Handbook of peer interactions, relationships, and group*s (pp. 45-63). Guilford Press.

Veiga Simão, A. M. V. D., Ferreira, P., Francisco, S. M., Paulino, P., & de Souza, S. B. (2018). Cyberbullying: Shaping the use of verbal aggression through normative moral beliefs and self-efficacy. *New Media & Society, 20*(12), 4787-4806.

Wang, X., Yang, L., Yang, J., Wang, P., & Lei, L. (2017). Trait anger and cyberbullying among young adults: A moderated mediation model of moral disengagement and moral identity. *Computers in Human Behavior, 73*, 519-526.

Watts, L. K., Wagner, J., Velasquez, B., & Behrens, P. I. (2017). Cyberbullying in higher education: A literature review. *Computers in Human Behavior, 69*, 268-274.

Werner, N. E., & Nixon, C. L. (2005). Normative beliefs and relational aggression: An investigation of the cognitive bases of adolescent aggressive behavior.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4*, 229-243.

White, K. M., Smith, J. R., Terry, D. J., Greenslade, J. H., & McKimmie, B. M. (2009). Social influence i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The role of descriptive,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injunctive, and in-group norm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8*(1), 135-158.

Willard, N. E. (2007). Th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of school officials in responding to cyberbullying.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1*(6), S64-S65.

Williams, K. R., & Guerra, N. G. (2007). Prevalence and predictors of internet bullying.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1*(6), S14-S21.

Ybarra, M. L., & Mitchell, K. J. (2004). Youth engaging in online harassment: Associations with caregiver-child relationships, Internet use,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Journal of Adolescence, 27*(3), 319-336.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부록>

청소년의 일상생활에 관한 설문지

안녕하세요.
본 설문지는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얻어진 결과는 **오직 연구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고,**
여러분 개인의 응답은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습니다(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
질문에 성실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생활환경복지학과
박사과정 박서연

---

* 나는 위 내용을 읽었으며, 질문지 작성에 동의합니다. 예 ( ), 아니오 ( )

* 자신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1. 여러분의 성별은?
   ① 남자 ( ) ② 여자 ( )

2. 여러분의 학년은?
   ① 중학교 1학년 ( ) ② 중학교 2학년 ( )

▣ 다음은 **사이버 괴롭힘**의 정의입니다. 아래 내용을 잘 읽고, 이후 질문에 답해주세요.

"사이버 괴롭힘"이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또래간의 괴롭힘 현상으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한 **그룹채팅방, 온라인 게시판** 등에서 일어나는 다음과 같은 행동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 고의로 상대방을 비방하기, 협박하기, 놀리기, 소문 퍼뜨리기 등
- 채팅방에서 나가도 계속 채팅방으로 초대하기 등
- 고의로 상대방이 원치 않는 사진, 동영상 및 게시글 올리기 등

"그룹채팅방"과 **"온라인 게시판"**은 카카오톡, 라인, 텔레그램,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틱톡 등 온라인으로 그룹채팅과 게시물을 게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3번에서 5번까지는 **여러분 자신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항을 잘 읽고 답해주세요.

3. 사이버 괴롭힘 상황에서 **자신의 모습**과 가장 비슷한 번호에 ✓표 해 주세요.

	그룹채팅방 또는 온라인 게시판에서	전혀 없다	거의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매우 자주 있다
1	나는 사이버 괴롭힘을 당한 친구가 싫어할 만한 메시지나 댓글을 쓴 적이 있다.	1	2	3	4	5
2	나는 메시지나 댓글을 통해 사이버 괴롭힘을 부추긴 적이 있다.	1	2	3	4	5
3	나는 사이버 괴롭힘을 함께 공유하려고 다른 친구들에게 링크를 보내거나 그룹채팅방에 초대한 적이 있다.	1	2	3	4	5
4	나는 사이버 괴롭힘과 관련된 메시지, 사진, 게시물 등을 캡처한 후 다른 친구들에게 전달한 적이 있다.	1	2	3	4	5
5	다른 친구가 누군가를 괴롭히기 시작하면 나도 같이 놀리거나 비웃는 글을 쓴 적이 있다(예: 같이 까기 등).	1	2	3	4	5
6	나는 누군가를 괴롭히는 목적으로 만든 그룹채팅방에 들어가서 함께 욕하고 비웃는 글을 쓴 적이 있다.	1	2	3	4	5
7	나는 그룹채팅방에서 일어나는 괴롭힘과 관련된 댓글을 읽고 반응을 안 한 적이 있다(예: 읽씹하기 등).	1	2	3	4	5
8	나는 사이버 괴롭힘 상황을 모른 척 한 적이 있다.	1	2	3	4	5
9	나는 그룹채팅방에서 괴롭힘이 일어났을 때, 채팅방을 나온 적이 있다.	1	2	3	4	5
10	나는 사이버 괴롭힘 상황에서 어느 누구의 편도 들지 않았다.	1	2	3	4	5
11	나는 누군가를 괴롭힐 목적으로 만든 그룹채팅방이나 온라인 게시판의 초대 또는 링크를 받아도 반응을 안 한 적이 있다.	1	2	3	4	5
12	나는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사이버 괴롭힘에 별 관심을 두지 않는다.	1	2	3	4	5

4. 다음의 행동들이 **얼마나 나쁜지 자신의 생각**과 가장 비슷한 번호에 ✓표 해 주세요.

	문항	전혀 나쁘지 않다	별로 나쁘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나쁘다	매우 나쁘다
1	온라인상에서 어떤 친구를 비웃거나 욕하고 공개적으로 깎아내리는 것	1	2	3	4	5
2	온라인상에서 어떤 친구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퍼뜨리는 것	1	2	3	4	5
3	온라인상에서 어떤 친구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야한 욕, 글, 사진, 동영상을 공유하거나 퍼뜨리는 것	1	2	3	4	5
4	온라인상에서 어떤 친구에 대한 개인정보(전화번호, 사진, 메신저 아이디 등)를 퍼뜨리는 것	1	2	3	4	5
5	온라인상에서 어떤 친구를 배척하고 소외시키는 것	1	2	3	4	5
6	온라인상에서 어떤 친구에게 겁을 주며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시키는 것	1	2	3	4	5
7	어떤 친구에게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	1	2	3	4	5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5. 사이버 괴롭힘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가장 비슷한 번호에 ✓표 해 주세요.

	사이버 괴롭힘 상황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와 친구를 놀리는 사람에게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사용해서 나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괜찮다.	1	2	3	4	5
2	사이버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안 좋은 메시지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것은 가해자에게 "교훈"을 가르치는 것일 뿐이다.	1	2	3	4	5
3	주위 친구들을 따라서 안 좋은 댓글과 나쁜 메시지를 보내는 친구를 비난할 수는 없다.	1	2	3	4	5
4	공개적으로 온라인 게시판에 친구에 대해 안 좋은 글을 올리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나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괜찮다.	1	2	3	4	5
5	집단적으로 사이버 괴롭힘을 한 경우, 그 집단의 한 사람에게만 비난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1	2	3	4	5
6	사이버 괴롭힘은 현실 세계에서는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	1	2	3	4	5
7	악의적인 메시지나 댓글을 받는 사람은 먼저 다른 사람들을 짜증나게 했기 때문이다.	1	2	3	4	5
8	사이버 괴롭힘을 당한 친구들은 나쁘게 취급해도 괜찮다.	1	2	3	4	5
9	만약 내가 누군가로부터 악의적인 메시지를 먼저 받았다면, 그 메시지를 다른 친구들에게 전달해도 괜찮다.	1	2	3	4	5
10	누군가에 대한 안 좋은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일종의 장난이다.	1	2	3	4	5
11	다른 친구들도 온라인 게시판과 그룹채팅방에서 사이버 괴롭힘을 했다면, 먼저 하자고 제안한 친구만 혼내서는 안 된다.	1	2	3	4	5
12	다른 심각한 불법 행동들에 비하면, 친구에 대한 안 좋은 댓글이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나쁘지 않다.	1	2	3	4	5
13	친구들이 강제로 시켜서 안 좋은 댓글을 작성한 친구를 비난할 수는 없다.	1	2	3	4	5
14	다른 친구에 대한 안 좋은 댓글을 쓰는 것은 그 친구에게 반드시 상처가 되지는 않는다.	1	2	3	4	5
15	사이버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는 대개 그럴만한 행동을 한다.	1	2	3	4	5
16	비굴하고 추하게 행동하는 친구는 사이버 괴롭힘을 당해도 괜찮다.	1	2	3	4	5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6번에서 7번까지는 **반 친구들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항을 잘 읽고 답해주세요.

6. 사이버 괴롭힘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지** 해당하는 번호에 ✓표 해 주세요.

우리 반 친구들의 생각		우리 반 친구들 중에서 ( )%				
		전혀 없음 (0%)	4분의 1정도 (25%)	반 정도 (50%)	4분의 3정도 (75%)	전부 (100%)
1	누군가에 대한 안 좋은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일종의 장난이다.	0	1	2	3	4
2	친구들이 강제로 시켜서 안 좋은 댓글을 작성한 친구를 비난할 수는 없다.	0	1	2	3	4
3	다른 친구들도 온라인 게시판과 그룹채팅방에서 사이버 괴롭힘을 했다면, 먼저 하자고 제안한 친구만 혼내서는 안 된다.	0	1	2	3	4
4	사이버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안 좋은 메시지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것은 가해자에게 "교훈"을 가르치는 것일 뿐이다.	0	1	2	3	4
5	사이버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들은 대게 그럴만한 행동을 한다.	0	1	2	3	4
6	집단적으로 사이버 괴롭힘을 한 경우, 그 집단의 한 사람에게만 비난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0	1	2	3	4
7	다른 친구에 대한 안 좋은 댓글을 쓰는 것은 그 친구에게 반드시 상처가 되지는 않는다.	0	1	2	3	4
8	악의적인 메시지나 댓글을 받는 사람은 먼저 다른 사람들을 짜증나게 했기 때문이다.	0	1	2	3	4
9	사이버 괴롭힘을 당한 친구들은 나쁘게 취급을 해도 괜찮다.	0	1	2	3	4
10	다른 심각한 불법 행동들에 비하면, 친구에 대한 안 좋은 댓글이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나쁘지 않다.	0	1	2	3	4
11	공개적으로 온라인 게시판에 친구에 대해 안 좋은 글을 올리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나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괜찮다.	0	1	2	3	4
12	만약 어떤 친구가 누군가로부터 악의적인 메시지를 먼저 받았다면, 그 메시지를 다른 친구들에게 전달해도 괜찮다.	0	1	2	3	4
13	비굴하고 추하게 행동하는 친구는 사이버 괴롭힘을 당해도 괜찮다.	0	1	2	3	4
14	주위 친구들을 따라서 안 좋은 댓글과 나쁜 메시지를 보내는 친구를 비난할 수 없다.	0	1	2	3	4
15	사이버 괴롭힘은 현실 세계에서는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	0	1	2	3	4
16	친구를 놀리는 사람에게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사용해서 나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괜찮다.	0	1	2	3	4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7. 다음 상황에 대해 **우리 반 친구들이 얼마나 나쁘게 생각하는지** 해당하는 번호에 ✓표 해 주세요.

	사이버 괴롭힘 상황	우리 반 친구들이 나쁘게 생각하는 정도				
		전혀 나쁘지 않다	별로 나쁘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나쁘다	매우 나쁘다
1	온라인상에서 어떤 친구를 비웃거나 욕하고 공개적으로 깎아내리는 것	1	2	3	4	5
2	온라인상에서 어떤 친구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퍼뜨리는 것	1	2	3	4	5
3	온라인상에서 어떤 친구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야한 욕, 글, 사진, 동영상을 공유하거나 퍼뜨리는 것	1	2	3	4	5
4	온라인상에서 어떤 친구에 대한 개인정보(전화번호, 사진, 메신저 아이디 등)를 퍼뜨리는 것	1	2	3	4	5
5	온라인상에서 어떤 친구를 배척하고 소외시키는 것	1	2	3	4	5
6	온라인상에서 어떤 친구에게 겁을 주며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시키는 것	1	2	3	4	5
7	어떤 친구에게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	1	2	3	4	5

♣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The Association of Personal Negative Beliefs and Moral Disengagement with Follower and Bystander Behavior in Cyberbullying Among Adolescents

- Moderating Effect of the Collective Negative Beliefs and Moral Disengagement -

Park Seo Yeon

Department of Human Ecology & Welfare,
Graduate School of Jeju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concentrates on the behaviors of followers and bystanders to prevent and reduce cyberbullying. The core purpose is to study how collective negative beliefs and moral disengagement moderate the connotation of adolescent's personal negative beliefs and moral disengagement with follower and bystander Behavior in cyberbullying.

A self-report survey was carried out on 760 students who are in 7th and 8th grade in a middle school on Jeju Island. These students were analyzed using SPSS and Model 2 in Process macro version 4.2. In addition, a simple slope verification was conducted to confirm the moderating effect. According to the results, first, collective moral disengagement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 negative beliefs and follower behavior in the cyberbullying of adolescents. High levels of collective moral disengagement were associated with personal negative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beliefs.

Secondly, collective negative beliefs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 moral disengagement and follower behavior. The simple slope increases as collective negative beliefs decrease.

Thirdly, collective moral disengagement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 negative beliefs and bystander behavior. Elevated levels of collective moral disengagement were associated with personal negative beliefs.

Finally, collective negative beliefs and moral disengagement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 moral disengagement and bystander behavior in cyberbullying of adolescents. The simple slope increases as collective negative beliefs and moral disengagement decrease.

This study lays the groundwork for creating a customized intervention plan for each follower and bystander behavior. It revealed that personal negative beliefs and moral disengagement in cyberbullying among adolescents vary depending on collective negative beliefs and collective moral disengagement. The application of social cognition theory in analyzing cyberbullying is crucial to understand group dynamics.

key words : cyberbullying, follower behavior, bystander behavior, personal negative beliefs, collective negative beliefs, personal moral disengagement, collective moral disengagement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